

IBK기업은행은 200만 소상공인·중소기업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MBC 라디오 여성시대 2022.3 ㈜문화방송

여성시대

양희은·서경석입니다

3 | 2022 March



MBC 라디오
매일 아침
09:05~11:00

행복을 찾는 사람들 1

IBK기업은행 대구한국부동산원지점 거래고객
㈜명성 김명용 대표

행복을 찾는 사람들 2

IBK기업은행 일곡지점 거래고객
순천우리병원 김한웅 원장

IBK의 마이데이터 서비스

i-ONE 자산관리

자산관리의 시작
i-ONE Bank
앱에서 경험해 보세요

통합자산서비스
전 금융권 자산 통합 조회
자산 분석 리포트 제공

생활금융서비스
부동산 시세정보 제공
노후를 위한 연금 조회

직장인특화서비스
신용등급 관리·커리어 관리



i-ONE 자산관리 바로가기

IBK기업은행

contents 2022년 3월호







04 **2022 여성시대 특집**
힘내라 청년! 청백전!

15 **이달의 편지**
'고향마을' 외

72 **행복을 찾는 사람들 1**
㈜명성 김명용 대표

76 **행복을 찾는 사람들 2**
순천우리병원 김한웅 원장

80 **코너 속 편지**
'뛰는 놈 위에 나는 놈' 외

109 **양희은의 스튜디오에서**
여행자의 소지품

112 **서경석의 스튜디오에서**
역주행 신화를 경험하다

IBK기업은행 협찬의 월간 여성시대는 작지만 큰 감동을 전하고자 합니다.
매월 10일 IBK기업은행에서 무료로 배포하며, 이웃과 함께 보면 감동이 2배로 늘어납니다.

여성시대

발행일 2022년 3월 10일 **발행인** ㈜문화방송 대표이사 박성제
등록번호 라 - 5413 **진행** 양희은, 서경석 **프로듀서** 박혜화, 박신유
방송 MBC라디오 매일 아침 9:05~11:00 **인터넷 주소** www.imbc.com
방송중 열린전화 02-368-1500 **문의** 02-789-3401 **주소** (03925)서울시 마포구 성암로 267 MBC 라디오 여성시대
편집·제작 하나로애드컴(02-3443-8005) **표지 작가** Heyhoney **월간지**(비매품)

전국 주파수 안내(표준FM) ※전국 각 지역은 아래 주파수대에서 MBC 라디오 청취가 가능합니다.

서울 95.9 **부산** 95.9 / 106.5 **대구** 96.5 **광주** 93.9 **대전** 92.5 / 91.3 **전주** 101.7 / 94.3 **창원** 98.9
춘천 92.3 / 88.9 **청주** 107.1 **제주** 97.9(견월악) / 97.1(삼매봉) **울산** 97.5 **강릉** 96.3 **진주** 91.1 / 93.5 **목포** 89.1
여수 100.3 **안동** 100.1 **원주** 102.5 / 92.7 **충주** 96.1 **삼척** 101.5 / 93.1 **포항** 100.7 **울진** 102.7 **울릉도** 98.5

2022 여성시대 특집

힘내라 청년! 청백전!

여성시대에서는 우리 청년들을 응원하기 위해 특집으로
'힘내라 청년! 청백전!'을 마련했습니다.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청년들과 그 가족들의
희로애락이 담긴 소중한 사연을 받아
총 60분께 백만 원씩 청년 희망 장려금을 전해드렸습니다.

2022년 여성시대 '힘내라 청년! 청백전!'은
창립 60주년을 맞은 한국자산관리공사 캠코와 함께했습니다.



단 하루도 헛되이 살지 않았다

김예나 |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조천읍

2022년 1월 27일 오늘로 2년 2개월의 응급실 근무를 마치고 제주집으로 내려간다. 마지막 근무를 앞두니 여러 가지 생각에 사로잡혀 잠이 오지 않는다. 내가 그토록 그리워하는 집과 사랑하는 가족 곁으로 돌아가는데 이토록 마음이 무거운 이유는 왜일까?

나는 한 번도 내가 응급실에서 근무한다는 밑그림을 그려본 적이 없다. 특별한 삶을 바라지도 않았고, 내 능력 외의 일도 생각해보지 않았다. 그날 우리 가족에게 우리 아빠에게 그런 일만 일어나지 않았다면 말이다.

굳이 그 일을 돌이키고 싶지는 않지만 몸과 마음이 아픈 아빠를 돌보는 엄마와 곁에서 그 상황을 지켜보는 언니를 생각하면 오히려 나는 타지에서의 생활이 행복했는지도 모르겠다.

그 엄청난 사건은 내 꿈을 바꾸게 하는 계기도 되었다. 내 사랑하는 롤모델, 우리 아빠를 위해 꿈을 바꾼 것이다. 그 꿈을 이루기 위해서는 응급실에서 2년 이상의 경력이 필요했다.

평소 내가 알던 응급실은 정말 응급할 때 가는 곳이었다. 그런 응급실을 나는 아빠 때문에 자주 가게 되었다. 어느 날은 자해를 해서 또 어느 날은 스스로 마음을 감당하지 못해 가기도 했다. 불편한 시선으로 우리를 바라보는 사람들을 애써 외면하며 우리는 아빠를 응급실에서 지켜내야 했다.

그리고 4년 후 나는 대구의 모 종합병원 응급실에서 응급구조사로 근무하기 시작했다. 떨림과 두려운 마음으로 시작했는데 무언가를 알아가기도 전에 코로나19라는 전혀 예상 못한 복병을 만나게 된 것이다.

근무를 시작하고 두 달도 되지 않은 시기에 닥친 대구의 코로나19는 나에게 방호복을 입게 하고, 고참들을 자가 격리하게 만들었다. 아직 손에 익숙하지 않은 것들이 너무도 많은데 나는 방패도 없이 창 하나만 들고 싸움터에 나가는 전사 같았다. 그때는 너무 힘들어 차라리 나도 자가격리자가 되고 싶었다. 그래도 남자친구와 가족의 응원이 있어 버틸 수 있었다.

돌아보면 그런 시기라 더 빨리 많은 것을 배우고 경험하는 계기가 되었던 것도 같다. 작년 12월로 2년 경력을 채우고 '지금 상황에 안주할까?'라는 생각도 했다. 더 도전하지 않아도 되고, 또 다른 지역에서 새 삶을 살아도 괜찮다는 마음도 있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나는 지금 제1경기를 마치고 제2의 경기에 나가기 위해 출발선으로 다시 걸어가고 있다. 이 출발선에는 가족이라는 무거운 짐을 얹고 있는 언니도 함께 있다.

긴긴 시간 오로지 한 목표만을 향해 가는 언니의 여정은 그리 순탄하지 않았다. 아픈 몸과 마음을 치유해야 하는 아빠에게도 경제적 살림을 책임져야 하는 엄마에게도 언니는 늘 필요한 존재였다.

엄마 아빠는 언니더러 언니의 길을 가라고 했지만 언니 눈에 보이는 상황이 언니를 편히 가도록 놓아주지 못했다. 나라면 내 인생을 찾아가겠지만 언니는 '가족이 먼저'라 성격상 그러지 못한다. 누구는 언니더러 포기하라고 하고, 누구는 끝까지 가보라고도 한다. 자신의 불투명한 미래에 대해 고민하는 언니를 보면 마음이 아프다.

이런 어려운 상황은 언니만이 아니라 많은 취준생의 고민일 것이다. 여기서 멈춰야 하나, 한 우물을 팠으니 계속 가야 하는 고민 속에서 얼마나 방황하겠는가?

할 수만 있다면 가족을 위해 희생한 언니에게 내 경력을 주고 싶다. 부모와 동생에게 용돈을 받아 쓰는 언니 심정을 어찌 헤아릴 수 있을까? 공무원 시험을 준비하면서도 여름이면 해수욕장 안전요원으로 일해 번 돈을 또 가족에게 쓰는 언니. 내가 만일 '힘내라 청년청백전'에 뽑힌다면 언니에게 모두 줄 것이다. 언니에게 주는 것들은 하나도 아깝지 않다. 언니가 없다면 지금의 나도 없기 때문이다.

날이 밝으면 마지막 근무를 하러 간다. 시원할 것도 섭섭한 것도 없는 마음. 이제 나는 사랑하는 가족의 품에서 언니와 나의 새로운 도전을 위해 나아갈 각오만 새기고 있다. 하나밖에 없는 울 언니 손 꼭 잡고 함께 결승선 테이프를 끊는 꿈을 꾸면서 말이다.



청년농부

김범준 | 경기도 하남시 위례순환로

저는 부모님과 함께 음식점을 하면서 부모님을 도우며 하루하루 열심히 살았습니다. 하지만 코로나19로 매출이 줄고 예약 손님이 끊겨 결국 코로나 상황 1년 만에 적자를 견디지 못하고 폐업하게 되었습니다.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았습니다.

폐업한 후 집에서 하루하루 걱정하는 부모님을 뵐 때면 눈물이 나고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할까'라는 생각에 잠 못 이루는 날들이 많아졌습니다.

어느 쪽으로 진로를 선택해야 할까 고민하고 있던 저는 우연히 텔레비전에서 저와 같은 나이에 유리온실을 지어 스마트팜을 운영하는 청년농부를 보았습니다.

그 농장은 습도센서, 온도센서, 광량센서, 풍향센서 등 여러 가지 센서를 통해 토마토가 잘 자라는 최적의 환경을 맞추었고, 빛의 양에 따라 물에 양분을 풀어 식물이 흡수할 수 있게 한 양액의 양이 매일 다르게 배분되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 장면을 보면서 제가 알고 있던 농업에 대한 인식이 완전히 뒤바뀌는 것을 느꼈습니다. 제가 알고 있던 농업은 노지에서 허리 숙여 흙 묻히며 하는 일이지만 이제는 저렇게 세밀한 환경 컨트롤로 고품질의 작물을 대량으로 생산할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저는 농업에 관심이 생겼고, 저런 농장을 운영한다면 육체적으로는 힘들겠지만 보람차고 행복할 거 같았습니다.

농업에 'ㄴ'도 모르는 제가 농업에 첫발을 들이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나의 적성이 농업과 맞는지, 내가 농업 지식을 배울 의지가 있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리저리 검색하면서 청년들을 농업에 유입시키기 위한 '농협 청년농부사관학교'를 알게 되었습니다. 이 학교는 농업을 희망하는 청년에게 농업인이 될 기회를 주는데, 저는 약 1시간 이상 되는 21개의 동영상을 보고 해당 내용을 약 2쪽 분량으로 요약 후 전체 내용에 관련된 시험을 보고 3대 1의 경쟁률을 뚫고 합격했습니다.

이후 6개월이 넘는 장기 합숙을 하며 농학과 교수님의 수업과 성공한 농업인들의 강연을 듣고 용접, 비닐하우스 제작, 토마토, 딸기 등의 농작물 재배 등 이론만으로는 부족한 실무 경험을 점점 쌓아나가기 시작했습니다.

다행히 저는 농업과 적성이 맞고, 농업에 관한 지식을 배우는 것도 상당히 흥미롭고 재미있습니다.

하지만 농업고등학교, 농업대학교에 진학한 또래와 경쟁하기에는 한참 부족할 것 같아 더 열심히 노력하며 적극적으로 공부했습니다.

농협 청년농부사관학교에서 공부하며 농업적 시야를 넓힌 저는 엽채류라는 작물을 선택했습니다.

우선 석 달간 대전에 있는 '동방종묘'라는 농가에 들어가서 수경재배를 하는 유럽 상추를 재배했습니다. 매일 새벽 5시, 로컬푸드 납품을 시작으로 포장 작업이 끝나는 오후 6시까지 하루 13시간 이상을 일했습니다.

힘들지 않다는 말은 거짓이겠지요. 하지만 꿈이라는 단어 하나만 믿고 열심히 노력하는 청춘이기에 그저 도전하는 것만으로도 행복하고 좋습니다.

지금은 농협 청년농부사관학교를 졸업하고 농촌에서 일하려는 청년들을 위해 마련한 국가정책에 지원하면서 일신팜이라는 밀양에 있는 엽채류 농가에서 실습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022년이 끝나기 전에 제 영농기반을 갖춰 충청북도 음성군에서 저만의 농장을 시작할 계획입니다. 제가 흘리는 땀방울이 결실이 되어 돌아오도록 열심히 노력할 겁니다. 저는 청춘이니까요.

다시 한번 소개할게요. 저는 2021년 초부터 '농부'라는 꿈을 가지고 열심히 준비하고 있는 26살 예비 청년농부 김범준입니다.



돌아라 미싱아

주정민 | 대구광역시 서구 통학로

저는 엄마와 함께 대구의 작은 봉제공장에서 일하는 34살 청년 미싱사입니다.

회사 다니다가 힘들어하는 엄마의 짐을 덜어드리려 시작한 공장일인데 미싱 앞에 앉은 지 7년이 되어가네요. 엄마는 옷만 보면 어떤 공정을 거쳐 만들었는지 한눈에 아시는 45년 경력의 베테랑입니다. 엄마가 공장을 꾸리셨을 때 고생하는 모습을 많이 봤어요. 불량품을 엄마 혼자 밤을 새워가며 고쳐야 했고, 급한 납품 요청 건이 오면 밤이 깊어 가는지 날이 밝아오는지도 모른 채 미싱 앞을 지키셔야 했지요. 집으로 옷감을 한 보따리씩 들고 오기도 하셨지요. '일은 제발 공장에서만 하시라'고 해도 다음 날 직원들 일하기 수월하게 선(先) 작업을 집에서 밤새워 하셨어요.

그렇게 열심히 꾸려오던 공장에 빨간불이 켜졌습니다. 코로나바이러스 때문에 직원들은 공장을 떠나기 시작했고, 2020년 2월에는 미싱 소리가 멈추었고, 시장에는 사람이 없고 가게들은 문을 닫아 옷을 파는 사람도 사 입을 사람도 없으니 옷을 만들 수도 없었습니다.

평생을 미싱과 사신 엄마는 밤새 뒤척이고, 엄마 뒤를 따라 미싱을 배운 딸도 불안해 잠 못 이루었습니다.

코로나 시기를 지나면서 며칠 바쁘게 일하고 또 한참 멈추고, 몇 주간 일하고 몇 달을 쉬는 일을 반복했습니다. 당시에는 주로 마스크 의뢰가 들어와서 몇백 장씩 만들었어요. 그때는 '마스크를 만드는 일이 사람 살리는 일'이라는 마음가짐으로 임했습니다.

다시 멈춰야 하는 때가 왔을 때, 엄마는 또 불면의 밤을 겪으셨지만 그 순간이 저에게는 무언가 가슴에 크게 울림을 느낀 시기였어요. '청년 미싱사'로서의 마음가짐과 자존감, 정체성을 찾으려고 노력했어요. 엄마 뒤를 이어 미싱을 배우면서 "잘 다니던 회사 그만두고 공장 일해서 시집은 갈 수 있겠니? 대학까지 나왔는데 결국은 공장이니?"라는 말 많이 들었고 앞으로도 들을 겁니다.

우리 엄마는 평생 미싱 돌려서 나와 동생을 대학까지 보냈고, 우리를 이렇게 키운 건 미싱 한 대와 바늘과 쪽가위 상처가 새겨진 엄마의 손이라는 걸 잊지 않겠습니다. 때로 엄마는 너무 지친 마음에 또 앞날이 보이지 않으니 두려워서 모진 말씀을 하실 때도 있는데, 그때는 그 말씀을 곧이곧대로 듣지 않고 나만의 해석을 더해 엄마 마음을 이해하자고 스스로 마음을 다잡는 배움의 시간을 만듭니다.

그 덕인지 2021년에는 정기적으로 일할 수 있었습니다. 대구가 안정을 찾아갔고, 우리 공장에서 만든 옷이 많이 팔려 밤늦게까지 미싱을 돌려 주문량을 맞추었습니다. 힘들지만 피곤하지 않았어요. 엄마와 저는 안심했고, 이렇게 일하면 우리 가족 숨통 트일 만큼은 벌 거라고 웃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신은 또 어찌 이리 잔인하신지요. 이번에는 '오미크론'이라는 변이 바이러스가 나타났다는군요. 2년 전 악몽이 다시 떠오르고, 이 불안에 응답하듯 1월 중반부터 우리 공장은 불이 다시 꺼졌습니다. 모든 인맥을 동원해 공장에 일을 맡길 업체가 있는지 전화를 돌리고, 친분이 있는 이웃 공장에 찾아가 일을 나눠달라고 부탁하지만 모든 공장이 다 비슷한 상황이라 여의치 않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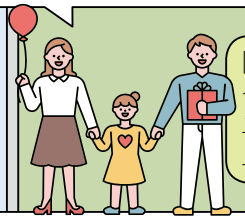
45년 만에 처음 겪어보는 막막한 계절에 우리 식구 배곯을까 염려하는 엄마. 34살의 장녀이자 미싱사인 저는 엄마를 위로하고 집안을 위해 무슨 일이라도 해야 할 것만 같은데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할지 잘 모르겠습니다.

우선 저는 운동을 시작했고 책을 펼쳤습니다. 매일 아침 스트레칭과 실내자전거를 타고 충분히 걸으려 합니다. 공장에만 있느라 못 누린 햇볕도 충분히 받고, 자연의 바람도 맞고, 이 덕인지 허리와 등이 아파서 보호대를 수시로 착용했는데 이제는 보호대는 멀리 던져둘 만큼 좋아졌어요. 걷고 책 읽고 남는 시간에는 기도합니다. 안전한 시간이 다가와 기계 소리가 멈춘 공장에서 듣기 좋은 소음이 흘러나오기를, 생업 현장에 계신 모든 분과 지친 사람들에게 노래와 춤, 웃음과 눈물, 사람과 마음이 나눠지기를, 마스크 속에 숨어있는 미소를 보게 되기를, 다정하게 두 손 꼭 잡게 되기를 기도합니다.

2022년 2월, 우리 공장은 언제부터 미싱을 다시 돌릴 수 있을지 아직은 알 수 없습니다. 그런데도 누군가의 기분을 좋게 만들어주는 예쁜 옷을 짓기 위해 힘든 순간에도 긍정적인 기분을 계속 유지하고 평정심을 가지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내 사랑을 소개합니다〉

[9830] 내 사랑은 자기 것 사는 데는 인색하고 구두쇠인데 저랑 아이에게는 용돈 다 써가며 다해 주려 한답니다.



[8489] 전 자신감 뿜뿜인 아내와 살고 있습니다. 제가 뭐 먹고 싶다고 하면 배달시키는 일 절대 없고! 본인이 직접 만드는데 그게 다 맛있진 않거든요. 가끔 제가 기미상궁인가? 착각할 정도입니다. '자기야~ 나도 남이 해준 음식 좀 먹어보자~.'

[4546] 내 사랑을 소개합니다. 내 여친은 착하고 귀엽지만 허당입니다. 도시락 싸가지고 산책 가자더니 안에 밥이 없어요. 그리고 삐질 때는 앙큼 고양이 같고 또 애교 부릴 때는 귀여운 토끼 같아요. 우리 여친 보면 동물농장 보는 것 같아요. 어찌 사랑하지 않을 수 있을까요.



[김수정] 울 남편은 생색 대장이에요. 노후된 화장실 샤워기 한 번 갈아주고는 제가 씻을 때마다 화장실 문 열고 "수압 좋지? 내가 갈아서 그래. 사람 불렀으면 몇만 원은 나갔을 거야" 하면서 스스로 뿌듯해 하네요.

[정선미] 저는 32살 미혼입니다. 아직 남친도 없어요. 제가 만나고 싶은 사람은요 재미있고 몸과 마음이 건강한 사람입니다. 키는 제가 작기 때문에 컸으면 좋겠고, 운동신경도 있으면 좋겠고, 웃는 미소가 이뻐서 화가 나도 나도 모르게 풀렸으면 좋겠고, 사람들과 관계도 좋았으면 좋겠고, 목소리도 멋있으면 좋겠습니다. 무엇보다도 다정하고 달콤한 사람이었으면 좋겠습니다.



[[8024] 솔로입니다. 전 제 머리카락 말려주는 남자 만나고 싶어요. 어릴 때부터 엄마가 미용실을 하셨고 저도 잠시 미용 일을 함께해서 다른 사람 머리만 말려줬거든요. 이젠 제 머리를 정성껏 드라이기로 말려주는 사람을 만나 사랑하고 싶어요. 드라마 '완전한 사랑'에서 차인표 씨가 김희애 씨의 머리를 말려주는 장면을 보고 난 뒤, 완전 제 로망이 됐습니다.

생방송 중 도착한 여성시대 가족들의 문자 모음입니다.



16 '고향마을'
20 알바하는 아들
23 우리 집 엥겔지수
25 엄마의 외출
28 나는 장애인 가족 돌보미
32 야간근무 16년
34 이야기 상대가 필요해
38 엔도르핀 할머니
42 문자로 하는 대화
45 술 취한 아저씨
48 반찬 가게 이야기
51 사랑은 무슨 색일까?
55 은퇴 후 계획
59 '늘푸른바다'는 순항중



일러스트 | **조신애**

Letter 01

‘고향마을’

이수일 | 경기도 안산시 상록구 용신로

경기도 안산시 사동에는 러시아 사할린에서 영구 귀국한 동포들이 모여 사는 ‘고향마을’이란 이름의 아파트 단지가 있습니다.

일제강점기, 일제는 총동원령을 내렸고 15만여 명의 동포들이 사할린의 탄광과 군사기지 등으로 강제노역에 끌려갔습니다. 연해주를 근거지로 항일운동을 해 오신 독립운동가들 역시 많은 수가 계셨고요. 강제노역에 동원된 동포들과 항일 독립운동가들 중 많은 분은 해방 후 고국에 돌아오지 못했습니다. 해방 전후 혼란한 정국 탓에 어느 곳으로부터도 신분을 보장받지 못한 채 고려인이라는 이름으로 그 척박한 땅에 정착해 살아가야만 했죠. 어머니의 어머니, 그 어머니로부터 복숭아꽃 살구꽃 아기진달래가 지천이던 아름다운 고향을 그리워하면서 말이죠.

지난해 12월 말경 친구 사이인 듯한 여성 손님 두 분이 우리 매장에 들어오셨고 손짓 몸짓으로 필요한 가구들에 대해 물어보기 시작했습니다. 이주한 고려인이란 걸 바로 알아차렸지만 러시아어 외에는 한국어, 영어 등 간단한 대화조차 불가능했습니다. 그래도 장사 짬밥이 있는지라 필요한 가구를 금방 파악했고 독립운동은 못했어도 보훈운동은 해드리겠단 맘으로 의관 정제 후 안내를 시작했습니다.

이내 처음 들어올 때의 경계의 눈빛은 사라졌고 꽤 긴 상담의 시간을 거친 후 명함을 받아들곤 환한 웃음으로 두 분은 매장을 나섰습니다.

시간이 지나 새해가 밝았고 며칠이 더 지난 어제 아침, “나… 2시 거기… 가요.” 까맣게 잊고 있었지만 전화기 너머 목소리를 듣는 순간 그녀들임을 알아차렸습니다. 정확히 2시에 매장을 방문한 두 분은 가구를 지목해서 결정을 했고 순조롭게 계약이 진행되는 줄 알았습니다.

그때부터 두 사람의 러시아어 대화가 또 시작됐습니다. 눈치껏 살펴보니 아마도 사이즈 땜에 고민하는 대화였던 것 같았습니다. 대화는 한참이나 계속됐고 저는 너덧 발자국 정도 떨어진 곳에서 그녀들의 대화가 끝나기를 기다려야만 했습니다. 한참이 지나도 도무지 끝날 것 같지 않은 대화와 고민스러운 얼굴 표정에 제가 개입을 해야만 했습니다. 퇴근 후 직접 집으로 방문해 실측을 해주는 것 말고는 다른 방도가 없음을 설명했고 약속을 위해 다시 손짓 몸짓과 메모를 섞어가며 말했습니다.

“내가 이따 집으로 갈게요. 내가 사이즈 잴게요. 걱정하지 마세요.”

난생처음 보는 희한하게 생긴 숫자 1이 적힌 전화번호와 동과 호수를 받았고 저녁 7시 고향마을 아파트로 향했습니다. 연로하신 이주 동포 2세와 한국 환경이 낯선 3세 동포들이 대부분인지라 주차장엔



주차된 차 한 대를 찾아보기 힘들었습니다. 그 또한 굉장히 낯선 분위기였고요.

방문한 집 거실엔 구순은 돼 보이는 듯한 이웃 할머니 두 분과 그녀의 어머님이 역시 낮은 톤의 러시아어로 담소 중이셨고 낯선 이방인을 바라보는 눈빛들은 경계심 하나 없이 자애로워 보였습니다.

안방과 작은방의 붙박이장 침대, 식탁, 소파 각각의 사이즈를 재고 선택한 품목의 가능 여부와 일부는 주문 제작을 해야 한다는 걸 알려줬습니다. 매장 출발 전 미리 준비하고 찍어놓은 사진들을 보여주면서 말이죠. 그녀는 이미 구입한 냉장고와 오븐 등의 카탈로그를 보여줬고 저는 가전제품의 사이즈까지 감안해 가며 상담을 해줘야 했습니다.

신기한 건 각국의 언어로 대화했지만 시간이 지나 대화가 거듭될수록 의미 전달이 정확해지고 있음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역시 가장 성능 좋은 번역기는 절박함이지 않나 싶었고요.

계약서 기입을 위해 물어본 그녀의 이름은 '소' 씨 성에 '에레나'라는 이름이었고 잠시 후 에레나는 커피와 초콜릿이 담긴 쟁반을 가져왔습니다. 한국 이주 후 미처 세간살이가 갖춰지지 않은 탓에 컵도 쟁반도 보잘것없었지만 독특한 향의 러시아 커피와 당도가 강했던 초콜릿의 맛은 무척 좋았습니다. 무사히 가구 계약을 끝내고 준비한 다과를 맛있게 먹는 것을 본 에레나는 두 배나 더 밝아진 표정으로 본인이 직접 만든 공예품 하나를 들고 와 보여줬고 만져보니 파라핀 계열의 소재로 만든 실물과 구분이 안 가는 산딸기 모형이었습니다. 아직 러시아에서 도착 못한 게 많다며 나머지 사진들을 보여주는데 그 솜씨가 정교하고도 놀랍기만 했습니다. 재료가 러시아에서 오는 대로 만들어서 선물을 하나 해주겠다는 말에 정확히 여섯 번 거절을 했지만 그녀들의 러시아 불곰식 고집을 꺾을 수 없었습니다. 만들어주시면 감사히 받겠단 인사를 했고 그녀와의 기분 좋은 실랑이를 끝내야만 했습니다.

제품 입고와 배송 설치 등 앞으로도 해야 할 일들과 어려운 소통의 과정이 많이 남아있지만 뭐 별 대수겠습니까. 그 추운 땅에서 강제노역과 독립운동을 하셨던 분들도 계신데 말이죠.

계약을 마치고 집으로 돌아가는 길, 어머님과 함께 먼 길을 돌아온 에레나 가족과 고향마을 사람들의 건강과 행복을 잠시 빌어드렸습니다.

Letter 02

알바하는 아들

정은주 | 대전광역시 동구 대전로

어제 알바 간 아들이 돌아올 시간이 됐는데도 오지를 않았어요. 걱정이 되어 연락했더니 곧 온다고 했는데 그러고도 한 시간이 훌쩍 넘어서 들어오더군요.

무슨 일이 있어서인지 얼굴이 굳어 있어서 걱정스러운 마음에 무슨 일이 있었냐고 물었더니 아들은 손을 씻으며 말했어요.

평소처럼 피씨(PC)방 청소를 하려고 불을 켰는데 뭔가 느낌이 좋지 않더랍니다. 그래도 습관처럼 제일 먼저 청소하는 남자 화장실로 갔는데 인기척이 들리더래요.

순간 '이게 뭐지?' 겁이 나서 조심스럽게 문을 열고 들어가니까 행색이 초라해 보이는 노숙인 한 분이 화장실 구석에서 웅크린 채로 자고 있더랍니다. 순간 아들은 가슴이 쿵 하고 내려앉았답니다. 미동도 없이 누워 있는 그분이 정말 자고 있는 건지 확인해야 할 것만 같아서 "저… 여기 계시면 추워서 위험하세요" 말을 걸었더니 그분이 날선 목소리로 "어… 어…" 하면서 조금 움직였고, 일단 안심한 아들은 그분이 알아서 그곳을 벗어나길 바라는 마음으로 여유를 드리려고 여자 화장실부터 청소하고 왔는데 다시 왔을 때도 그분이 그대로 계시더랍니다. 추워서 잠을 제대로 못 주무신 듯 보였대요.

시간 안에 청소를 마쳐야 하는 아들은 복도랑 매장 안을 청소하고 마지막으로 '제발… 제발…' 그분이 떠났기를 바라면서 다시 남자 화장실로 걸음을 옮겼는데 인기척을 들은 그분께서 벌떡 일어나더니 온수도 안 나오는 공중화장실 찬물로 세수를 하고 머리를 매만지더랍니다.

아들은 깜짝 놀라서 "어르신, 찬물로 씻으면 감기 걸리세요"하고 말려봤지만 노숙인 어르신은 "어어… 괜찮아요. 냉수마찰도 하는데…" 하며 허탈한 웃음을 지으셨답니다.

그 모습에 부모님 생각이 나더래요. 저희가 TV에서 어렵게 사시는 분들 모습이 비춰질 때마다 "노년은 좀 편안하면 좋을 텐데 미래를 알 수 없으니 우리도 더 나이 들면 어떻게 될지 알 수 없지" 하면서 안타까워하던 게 떠올랐나 봅니다. 이틀 전에 뵙고 온 할아버지 할머니 생각도 스쳐 지나가면서 한순간에 마음이 복잡해진 모양이에요.

아들은 지갑에서 만 원짜리 한 장을 꺼내 "어르신, 제가 알바생이라 더 드리고 싶은데 저도 가진 게 없어서요. 목욕탕이라도 가셔서 따뜻한 물에 목욕하세요. 술 사드시라고 드리는 거 아니에요. 꼭 따뜻하게 씻으셨으면 좋겠어요. 추운데 오래 계시면 안 좋아요"하고 건넸답니다.

추운 겨울, 계단에 쭈그리고 앉아 있던 분을 집으로 데려와 따뜻한 차 한잔 드리며 몸을 녹여드리던 엄마 생각이 나서 그랬대요.

"엄마 아들이 어디 가겠어요?" 하면서도 아들은 마음 한편이 많이 복잡했다며 화장실에서 인기척이 났을 때 덜컥 겁이 나고 무서웠던 마음, 청소하는 내내 빨리 가시길 바라며 경계했던 마음, 무슨 일 생기면 어쩌지 걱정했던 마음을 전해주었습니다.

"저 돈 드릴 때도 엄청 갈등했어요. 돈이 더 있었으면 더 챙겨드렸을 텐데 지갑에 만 원짜리 한 장, 오천 원짜리 한 장 씩 있어서 그 사이에서 갈등하고 망설이다가 만 원 드렸어요."

웃으면서 얘기하는데 울컥해서 아들을 꼭 안아줬습니다. 잘했다고, 대견하다고 등을 토닥여주면서요.

우리 아들은 넉넉하지 못한 집안 형편을 알고 스스로 알아서 특성화고에 지원하여 졸업하고 1년 반 정도 사회 생활하다가 나라의 부름 받고 군대 갔다 와서 이제 막 전역한 23살 예비 사회인입니다. 직장 알아보면서 용돈은 스스로 벌겠다며 피씨방 청소를 하고 있어요.

오늘은 그런 아들이 멘탈 탈탈 털리는 면접을 보러 갔습니다. 늦지 않기 위해 새벽부터 채비하고 갔는데 대한민국 부모님들 마음이 다 그렇듯 엄마 마음이 더 떨리네요. 지금쯤 면접 시작 했을 시간이에요. 부디 준비한 만큼 기량 발휘하고 오기를 두 손 모아봅니다. 여성시대 애청자 여러분도 함께 응원 부탁드려요.



Letter 03

우리 집 엥겔지수

김봉선 | 부산광역시 기장군 기장읍

지인이 밥을 사고 싶답니다. 혼자 사는, 남편 친구입니다. 돼지고기를 먹으면 피부에 가려움증이 돋는 저를 위해 우리 집 근처 단골 소고기 집을 예약해놨다고 식구 수대로 다 오라고 합니다. 우리 식구는 고등학생 아들, 중학생 딸까지 4명입니다. 그분의 지갑 사정을 고려해서 남편에게 저와 아이들은 가지 않겠다고 했으나 남편이 괜찮다며 그 친구가 모두 데리고 오라 했답니다. 다행인 것은 중학생 딸이 친구들하고 논다며 식사 자리에 불참했습니다.

남편이 식당 주인에게 친구가 밥 산다고 해서 왔다며 너스레를 떱니다. 제 아이를 어릴 적부터 봐왔던 식당 주인은 아이 이름을 부르며 반가워하더니 우리가 주문한 소고기 5인분보다 배는 더 많아 보이는 양을 썰어서 내주었습니다.

헌데 우리 아이가 조금 이상합니다. 예전 같으면 진공청소기로 흡

입하듯이 고기를 싹쓸이했을 아이가 점잖게 어른들 속도에 맞춰서 먹고 있습니다.

이야기를 나누며 고기를 굽다가 이번엔 피자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마침 그 근처에 괜찮은 포장 전문 피자집이 있어서 집에 가는 길에 가져가자며 주문을 넣었습니다. 마침 원 플러스 원 메뉴도 있어서 우리 집 한 판, 지인분 한 판 드리기로 했습니다. 제가 피자를 가져오겠다고 하니 아이가 따라나섭니다. 아이가 가는 길에 위치한 편의점에 들려 삼각김밥을 삽니다. 그리곤 냠냠 먹습니다. 왜 그러냐니까 "아빠가 사는 밥도 아닌데 많이 먹기가 뭔가 미안해서~"라며 삼각김밥으로 배를 좀 채워야겠다고 합니다.

식당으로 돌아와 후식으로 나오는 된장찌개에 밥을 세 공기나 먹은 아이는 그래도 조금 부족해 보입니다. 집에 돌아오자마자 피자 박스를 열고 "우와~" 합니다. 앉은자리에서 피자의 반을 순식간에 먹어치우더니 그제야 배가 찬 듯 아이 얼굴에 화색이 돕니다.

대충 치워놓고 저는 휴대폰으로 마트 앱을 켰습니다. 아이들 점심으로 해줄 김밥 거리랑 유부초밥, 닭볶음탕 재료, 우유, 달걀 등을 담다 보니 어느새 15만 원이 훌쩍 넘어갑니다. 먹을거리만 담았는데도 그렇습니다. 아이를 불러 머리를 맞대고 장바구니를 살핍니다. "이거 먹을 거야? 이건 별로야? 이건 나중에 사자." 하나둘 빼고 나니 9만 9천 원 정도가 됩니다.

결제하고 나니 물가가 오른 것이 실감도 나고 우리 집 엥겔지수 이대로 괜찮나 걱정이 되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아까 집에 와서 피자를 먹고 화색이 돌던 아이의 배부른 낯이 떠오릅니다. 엥겔지수가 높으면 어떻습니까? 내 새끼들 입으로 들어가는 것이며 그러기 위해서 부모인 우리가 돈을 버는 거니까요.

Letter 0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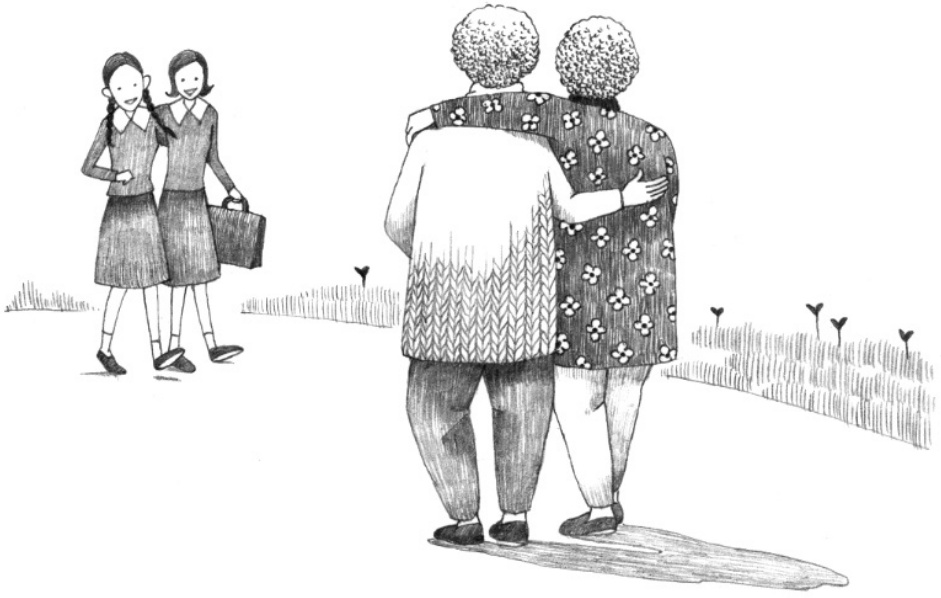
엄마의 외출

윤서연 | 광주광역시 북구 일곡택지로

전라남도 장성에서 농사만 짓고 아버지의 삼시 세끼 때문에 긴 시간 외출이라고는 손에 꼽을 정도인 올해 74세 할머니가 나의 엄마입니다. 농사일이 우리 부모님 직업입니다.

2021년 9월, 작년 추석에 엄마는 그리운 친구, 죽기 전에 꼭 보고 싶은 친구가 있었는데 결혼 후 50년 동안 보지 못한 그 친구와 드디어 소식이 닿았다고 하셨습니다. 어린 시절 친구로부터 그 친구의 연락처를 어렵게 받아 통화했고 목소리를 듣고 한참을 얘기했는데 너무나 반갑고 기뻤다며 엄마 인생에서 가장 좋은 추억을 함께한 친구라 모습은 어떻게 달라졌는지 어떻게 사는지 궁금하고 죽기 전에 한 번 꼭 만나보면 좋겠다고 하셨습니다.

이 말을 듣는데 제 귀에는 꼭 삶을 정리하는 소원 같은 느낌이 들어 한편으로는 슬펐습니다. 저는 회사에 연가를 신청하고 엄마와 같



이 그 친구 분을 만나자고 제안했고 엄마는 "갈 수 있을까나? 볼 수 있으려나?" 하시며 걱정 반 기대 반 설레어하셨습니다.

엄마 친구 분은 경기도에 사시고, 엄마는 시골 깡촌에 살고 있어서 두 분의 상봉이 쉽지 않았습니다. 엄마는 장거리 외출은 해보신 적이 거의 없습니다. 집안 결혼식 외에는 거의 외출이 없었고, 복잡한 곳에서는 얼음이 되어 버리십니다. 누군가와 같이 가는 게 아니면 길을 잃어버릴 것 같다고 시도도 하지 않으십니다.

2021년 11월 12일, 아들이 표를 끊어준 KTX 기차를 타고 엄마가 용산역에 도착했습니다. 서로 얼굴을 못 보고 50년을 보냈기 때문에 누구인지 찾을 수가 없었지요. 통화를 했고 옷차림을 설명해주셔서 그 분을 찾기 시작했습니다. 한참을 둘러보다가 말씀해주신 옷차림을 한 분을 찾았습니다. 서로 이름을 묻더니 갑자기 끌어안고 두 분이 울기 시작했습니다. 저도 울었습니다. 21세기에 이산가족 상봉하듯이 얼싸안고 우는 모습에 근처를 지나던 사람들의 시선도 머물렀습니다.

그분은 엄마 손을 꼭 잡고 새벽에 밥도 못 먹고 출발했을 거라며 죽 가게로 데려가 주셔서 덕분에 따뜻한 아침을 대접받았습니다.

그녀들은 소풍을 나온 듯 남산공원에서 사진도 찍고 밥도 먹고 간식도 사 먹으며 소녀마냥 신이 나서 기쁨으로 하루를 채웠습니다. 헤어질 시간이 왔고, 엄마는 한 해 농사지은 참기름, 찹쌀, 참깨를 친구 분에게 건넸고, 친구 분은 점퍼와 양말, 스카프 등등을 선물로 주셨습니다. 선물을 챙기면서 서로에 대해 얼마나 많이 생각했는지 알 것 같았습니다.

찐 친구를 만난 엄마는 돌아오는 열차에서 저에게 고맙다 하셨습니다. 못 보고 떠날 수도 있는데 여한이 없다고 하셨습니다. 저는 엄마에게 이런 친구가 있다니 부럽기도 하고 기뻤습니다. '엄마에게 친구가 있었나?' 생각해 보았는데 친구를 한 분도 뵌 적이 없었거든요.

두 분은 요즘 서로 연락하며 선물 챙겨 보내는 경쟁을 하며 소중한 제2의 추억을 만들고 있습니다. 두 분은 1년에 한 번은 꼭 만나자며 다음번에 볼 때는 따뜻한 계절에 보자고 약속하셨답니다.

저는 엄마가 건강하시기를 그래서 소중한 친구와의 추억을 많이 만들며 사시기를 기도하며 언제라도 동행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만남까지 50년이 걸렸다니 너무 많은 시간이 흘러버렸습니다. 두 분 이야기가 여성시대에 나오면 두 분에게 추억이 하나 더 생길 것 같아 편지 올려봅니다.

Letter 05

나는 장애인 가족 돌보미

이선주 | 대구광역시 서구 달서천로

전 보육교사와 간호조무 일을 오랫동안 했습니다. 몇 해 전부터는 아이 돌봄 일을 하고 있고요.

유니를 첨 만난 건 유니가 태어난 지 넉 달 되던 때였어요.

"안녕하세요, 어머니. 오늘부터 유니를 돌볼 교사입니다."

"네~ 네~ 에~"

그때 유니 아버님으로부터 휴대폰 영상통화가 와서 인사를 드려야 하는 상황이 되었죠.

"안녕하세요, 아버님. 유니 돌봄교사입니다."

영상 속 아버님은 지나치게 큰 금목걸이를 하고 금팔찌에 큰 시계까지 하고 나이도 많아 보였습니다.

"거기… 그… 유니… 으으으응응~"

"네? 아버님, 죄송합니다. 잘못 알아들었습니다."

아버님의 말을 잘 알아들을 수 없어 당황했습니다. 그리고는 계속 죄송하다는 말만 되풀이했어요.

유니는 예쁘게 자고 있었어요. 그제야 집안이 눈에 들어오더군요. 세 식구가 살기에 너무도 좁고 좁은 곳. 짐이 넘쳐나 어디에 앉아야 될 지도 모르겠고 유니를 돌보는 게 제 임무인지라 덮고 자는 이불을 바로 펴주려고 옆에 다가갔죠. 그때 전 정말 소리를 너무도 크게 질렀습니다. 제 목소리가 그렇게 클 줄이야. 저도 몰랐어요.

"아~ 악~ 엄마야~."

이불을 만지는 순간 바퀴벌레 수십 마리가 후다닥! 유니의 엄마는 제가 놀라 뒤로 넘어지는 걸 보고 웃기만 하더라고요. 그러고 보니 온 집안에 바퀴벌레들이 돌아다니고 있었어요.

우리의 첫 만남은 그렇게 시작되었습니다. 오십 대 후반의 유니 아빠, 사십 대 초반의 유니 엄마 그리고 유니. 금목걸이 금팔찌를 했던 유니 아빠는 어느 날 "선새미… 목이 빨개. 아파 아파…." 자세히 보니 가짜였어요. 금속으로 된 거였는데 질이 좋지 않았던 모양이죠. 목이고 손목이고 알러지가 심하게 퍼져 있더라고요. 정말 금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서인지 절대로 안 벗으려고 해서 애를 먹었죠.

유니 아빠는 5살, 엄마는 6살 정도의 지적장애인이랍니다. 미운 다섯 살, 여섯 살 아시죠? 정말 딱 그래요. 마음대로 하려고 하고, 정리도 안 하고. 세상 모든 게 마냥 재미있는 시기죠. 그래서 제가 목청이 높아질 때가 종종 있답니다.

유니는 사진이 없었어요. 백일 사진도 없었어요. 유니 예쁜 모습 담아두려고 틈만 나면 휴대폰으로 사진을 찍고 동영상도 찍어서 이제는 사진 찍을 때 일류 모델이 와서 울고 갈 정도로 멋진 포즈를 만들어 내는 세 악동들입니다. 시간만 나면 사진 찍자고 난리라서 사진 찍

는 법, 동영상 찍는 법을 알려주었더니 이젠 알아서 척척입니다. 돌 때는 사진관에 가서 옷을 빌려 입고 가족사진을 제대로 한 장 남겼어요.

집 앞에 전통시장이 있어서 넷이 함께 구경 가는 걸 좋아해요. 유니는 휴대용 유모차에 태우고 우리는 걸어서 가는데 갑자기 소나기가 내렸습니다. 유니 아빠가 다행히 가방에서 우산 하나를 꺼내더라고요.

"와~ 우산이 있었네. 빨리 유니 씌워주세요. 빨리요."

"으응응… 아데아데… 나 비 안데. 대머리 대머리…."

그리고는 혼자만 쓰고 가버렸어요. 웃어야 할 상황은 아닌데도 뛰어가는 유니 아빠를 보며 얼마나 웃었던지요.

출근을 하지 않는 날에는 유니 엄마와 영상통화를 합니다. 유니가 어려서 혼자 뭘 먹을 수가 없어서 하나하나 가져다 먹이라고 계속 얘기해 줍니다. 유니 엄마는 저보다 어려서 절 언니라고 해요. 뭐라고 하면 무조건 알았다고 합니다. 그리고는 전혀 하지 않습니다. 자기주장이 아주 강한 동생이죠.

한 달에 한 번은 장애인 전용 나드리콜을 이용해서 가까운 곳에 놀러도 가요. 가방 가득 먹을 것도 각자 챙기고 다들 신났죠. 전 김밥을 싸서 준비했고요. 놀이동산에 갔답니다. 그냥 작은 공원인데 놀이기구가 몇 개 있는 곳이죠. 사실 전 야외나들이 하는 날을 제일 무서워합니다. 아빠 잡으면 엄마가 사라지고, 엄마 챙기면 아빠가 또 사라지고 거의 실신이 되어서 돌아온답니다.

우리 유니로 말하자면 어지간해서는 울지 않아요. 그리고 이유식 덕분인지 김치도 잘 먹죠. 동네 분들 만나면 무조건 인사부터 해요. 항상 방긋방긋 얼마나 잘 웃는지 그 모습만 보고 있어도 천국입니다.

하지만 저의 천국은 오래가지 않았어요. 유니가 이상합니다. 조금

씩 뭔가 다릅니다. 또래 아가들과 달라요. 유니 만큼은 엄마 아빠를 닮지 않기를 사실 바랬거든요. 걱정이 되어 매달 의사 선생님과 상의를 하는데 큰 병원에 가서 검사를 받아 봐야 할 것 같습니다.

종합병원에 갔어요. 입원하고 뇌 검사부터 언어, 신체… 다 검사했습니다. 유니의 뇌는 보통 아이들과 조금 다르더군요. 뇌하수체에 문제가 좀 있더라고요. 언어도 신체도 또래와 비교도 안될 만큼 낮아서 여러 가지 검사를 했고, 아직 정확한 결과는 나오지 않은 상태입니다.

이제 다섯 살 유니 옆에 제가 종일 함께할 수는 없어요.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을 다녀야 하는데 또래 애들과는 달라서 일반 유치원에 가서 잘할 수 있을지 걱정이 태산입니다. 유치원 여러 곳을 돌아다녔어요. 유니를 받아주는 곳이 없더군요. 장애통합어린이집을 알게 되어 결국 그곳으로 입학을 결정하고 돌아오는데 유니는 그저 신이 나서 재잘재잘 알아들을 수 없는 말을 연신 해댑니다.

아무래도 마음이 놓이질 않아요. 그래서 전 장애아 돌봄 서비스를 하기로 했어요. 교육도 필요하고 자격도 필요해서 당분간은 많이 바빠집니다. 유니 엄마를 도와줄 손길도 필요해서 진단서를 떼고 서류도 내야하고 해야 할 일들이 좀 많네요.

큰아들 큰딸은 한 고집 씩 해서 갈 길은 멉니다. 그래도 제게는 너무나 소중한 친구들입니다. 얼마나 맑은지 몰라요. 제가 화 나 있을 때 간지럼을 태워서 웃게 하죠. 몸은 힘들지만 마음은 힘들 틈을 안 주는 곳. 전생에 나라를 구해서 이렇게 행복한 새 식구를 만난 것 같습니다. 웃음이 끊이지 않는 또 하나의 우리 집입니다.

올해는 유니를 위해 힘껏 뛰어야 합니다. 정말 할 일이 많아요. 함께 응원해 주시겠어요!

Letter 06

야간근무 16년

애청자

전 야간근무만 16년 한 근로자였습니다. 저녁 7시부터 아침 7시까지 12시간 근무했지요. 찜질방 기계실에서 전기도 보고, 보일러도 보고, 직원들은 '기관장님'이라고 부르곤 합니다.

코로나가 참 길게 이어지는 거 같습니다. 영업시간을 단축하니 새벽 영업 준비하느라 저만 기계실에서 일합니다. 목욕탕은 밤엔 영업을 하지 않더라도 필수적인 기계는 자동으로 돌아간답니다. 그래야 영업시간에 물 온도를 보정할 수 있거든요.

나름 잘 버틴다 했는데 올해 1월 5일에 재정 악화로 잠시 문을 닫게 되었답니다. 대표님도 많은 생각 후에 결론을 내렸겠지요. 찜질방에서 일하는 분들이 그리 넉넉한 생활을 하시는 분들이 아니고 회사에선 거의 일용직으로 등록해서 휴업을 해도 혜택을 못 받는 분들이 많습니다. 아마도 그런 이유로 몇 번이나 휴업을 뒤로 미뤘는지도 모르겠네요. 거의 1년 동안은 급여에 20%는 감봉된 채 다닌 거 같고 서로 힘듦을 감내하려 했지만 이젠 그런 노력도 더 할 수 없는 형편이 되었나 봅니다.

무릎 관절이 안 좋아 잘 앉지도 못하셨던 스낵 코너 이모님. 식당에서 새우잠 자며 한 그릇이라도 더 팔려고 노력하신 식당 사장님. 항상 청결하게 청소하시던 탈의실 아저씨. 유방암에 걸렸는데도 약 드시며 버티고 일하신 매점 이모님. 모두 그렇게 잠시 떠나기로 했답니다.

카운터에서 알바 하던 대학생은 지방에서 올라와 지난겨울엔 패딩 살 돈도 모자라 2만 원짜리 숏 패딩 하나 사 입고 자랑하던 친구입니다. 행여나 뭘 주면 자존심 상할까 봐 간식거리라도 충분히 챙겨 놓으면 잘 먹던 녀석입니다. 다른 곳에선 별 어려움 없이 지내길 바라는 마음에 교통카드에 10만 원 충전해주니 "감사합니다" 눈물 글썽거리는 모습에 등 떠밀어 보내며 안녕했네요.

모든 전기와 기계를 내리고 밤 10시에 건물을 나와 지하철역으로 가다가 잠시 뒤돌아 꺼진 간판을 보는 순간, 울컥하는 마음에 고개를 숙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16년 동안 빛나던 간판이었습니다. 야간근무하는 저로서는 항상 켜 있던 모습만 봤는데, 항상 현란한 친구였는데 친구를 잃었습니다.

저는 몇 년 만에 여성시대를 듣고 있습니다. 생방송으로 듣기는 참으로 오랜만입니다. 저는 다시 취업 도전 중입니다. 50대 기술직이긴 하지만 어려움이 있네요. 낮엔 뭘 해야 할지 몰라 인강도 듣고 라디오도 많이 듣고 있네요. 며칠 낮 생활 하다 보니 너무 피곤해서 잠시 밤 생활도 해야겠어요. 이 동네 10년 살고 있는데 요 앞 슈퍼 사장님도 첨 뵙네요. 낮 세상에서 처음 보는 것들이 정말 많네요.

잃은 친구를 다시 볼 수 있길 간절히 바랍니다. 되도록 빨리요.

Letter 07

이야기 상대가 필요해

애청자

며칠 전, 칠십이 넘으신 친정엄마와 함께 사는 동생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얼마전에 한 엄마의 건강검진 결과가 심상치 않다는 내용이었습니다. 말만 들어도 놀랄 법한 '경도인지장애' '당뇨' 등이 의심되니 빨리 병원 진료를 받아보라는 것이었습니다. 동생이 찍어 보내 준 결과지를 보는 순간 올 것이 왔구나 하는 두려움이 엄습해 왔습니다.

아빠가 돌아가신 지 올해로 딱 십 년째. 미혼인 동생들과 그럭저럭 잘 지내신다고 여겼는데 요즘 들어 전화 통화에서 이상한 낌새가 있기는 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갑자기 통보를 받게 될 줄은 상상도 못했습니다. 원래 고혈압에 관절염 같이 그 나잇대 어르신들이 가지고 있을 법한 몇 가지 질환은 예전부터 있어 왔고 병원 진료도 받고 약도 꾸준히 챙겨 드셔서 별걱정은 안 했습니다.

너무 방심했구나 하는 자괴감과 죄책감으로 일주일 내내 머릿속에는 온통 엄마 걱정뿐이고 하루라도 빨리 종합병원 진료를 받고 병의 진행을 막아야겠다는 생각으로 이곳저곳 알아보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그게 맘처럼 쉽지가 않더군요.

고령화 사회라고 들어만 봤지 경도인지장애나 치매 같은 노인성 질환으로 치료받는 분들이 이렇게나 많을 줄은 미처 몰랐습니다. 큰 병원에 예약 날짜를 문의하니 한결같이 3개월에서 6개월, 유명하다는 곳은 1년 후에나 진료가 가능하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일주일을 수소문해서 간신히 이번 주 토요일에 진료를 받을 수 있다는 종합병원을 찾았고 당뇨와 다른 질환도 금요일 오후에 진료를 볼 요량으로 예약을 했습니다.

친정에는 제가 가서 1박 2일 동안 병원 진료를 전부 모시고 다니겠노라 가족들에게 이야기했습니다. 저도 사실 방학한 초등학생 딸을 집에 남겨 두고 친정에 1박 2일이나 다녀오는 것이 쉬운 일은 아닙니다. 그러나 코로나 때문에 아이를 데리고 서울로 이동하는 것은 어렵겠다고 생각했습니다. 1박 2일 동안 아이들이 먹을 끼니를 전부 준비해두고 아이에게 대충의 이야기를 해두고 남편의 양해를 얻어 친정행을 맘먹었습니다.

그런데 전날 동생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엄마가 그 전날 병원 진료를 받고 몸살이 났고 또 당신의 검진 결과에 충격을 받아서 스트레스로 밤새 한잠도 못 주무셨으니 병원 진료는 못 갈 것 같다고 올라오지 말라는 것이었습니다. 일주일 동안 출근 직전까지 매일 종합병원 예약 전화를 돌리고 유명하다는 의사 선생님을 찾는데 하도 진을 빼다 보니 못 가겠다는 엄마의 그 한마디가 그렇게 섭섭할 수가 없었습니다.

온종일 속상한 마음에 시무룩해서 퇴근하는데 아래층 사시는 할머니를 아파트 엘리베이터에서 만났습니다. 친정엄마와 연배도 비슷하고 체구도 비슷하신 분이라 늘 반가운 분이지요. 부부가 식당을 하신다는 노부부가 시골 다녀오는 길이라며 농산물을 수레에 한가득 싣고 올라오셨습니다.

"어르신, 저는 서울 사람이라 이리 시골서 뭐 가져오시는 거 보면 그렇게 부러울 수가 없어요."

"그려? 그럼 이거나 하나 가져가 먹어! 내가 방금 방앗간에서 뽑아온 거야" 하시며 툭 건네주신 비닐봉지에는 찹쌀로 만든 뜨끈한 떡이 한가득 들어 있었습니다.

"이렇게 많이 주셔도 돼요?"

"나 많아. 가져가서 먹어요."

연신 감사하다는 말을 하며 받아서 집에 들어와 먹어보니 세상에 이렇게 맛있는 떡이 있을까요. 요즘 말로 정말 '인생 떡'이더군요. 우리 농산물로 방금한 김이 모락모락 나는 떡이라니 친정엄마에게 섭섭했던 감정과 걱정이 한순간에 눈 녹듯 다 사라지는 맛이었습니다. 허겁지겁 딸과 얼마나 맛있게 먹었는지요.

후에 남편과 이야기를 하며 친정엄마와 아랫집 할머니가 비슷한 분이신데 왜 저 분은 저리 씩씩하고 멀쩡하신데 우리 엄마만 경도인지장애가 생기셨을까 하는 의문이 들었습니다. 주변에 친지 분들도 가만히 생각해보니 떠오르는 것이 있었습니다. 바로 '사회적 활동'의 차이가 아닌가 싶었습니다.

아래층 할머니는 식당을 하면서 늘 사람들과 함께하고 심지어 손주 3명을 돌보며 사십니다. 친정엄마는 미혼인 동생과 살기는 하나 오후 시간대에 동생이 출근하면 늘 혼자 계십니다. 남들과 잘 어울리는 사교적인 성격이 아니다 보니 복지관 같은데 가는 것도 싫어하고 혼자 운동을 하거나 한 달에 한 번쯤 동창분들 만나시는 게 전부입니다. 그러니 말수가 적어지시고 뇌를 쓸 일이 점점 줄어드는 것이겠지요.

주변에 다른 분들을 보아도 비슷합니다. 성격이 외향적이고 사회활동을 하는 분들은 팔구십이 넘으셔도 몸은 아플지언정 치매나 뇌 질환을 가진 분들이 많지 않습니다.

2년 전에 당뇨 후유증인 뇌경색으로 쓰러져서 1년 넘게 치료하고 회복하신 시아버님도 비슷하십니다. 복지관에 가시라고 해도 싫다 하시고, 뭘 배워보라 해도 돈도 안 되는 거 뭣 하러 하냐고 싫다 하십니다.

사람이 나이가 들면 돈도 중요하지만 사회에 기여하고 봉사하는 자세로 계속적인 사회활동을 하는 것이 정말 중요하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인간은 사회적 동물이니 당연히 어울려 살아가야 하고 우리의 뇌도 사람들과의 어울림 속에서 쓸 일이 더 많아지지 않겠어요?

옛날이야 대가족이었으니 집에만 있어도 온종일 이 사람 저 사람 북적거렸지만 이제는 어르신 혼자 혹은 두 분이 계시는 집이 많으니 이야기 나눌 상대가 없어서 사회성이 떨어지는 거겠지요.

남편과 약속했습니다. 우리는 늙어서 경제활동을 하지 않아도 봉사하는 기회를 통해서라도 꼭 사회활동을 놓지 말자고요. 나이가 들어가면서 어떻게 늙어가는 것이 좋은 삶인가 다시 생각해보는 기회가 되었습니다. 조만간 떡을 나눠주신 할머니께 딸기 한 팩 사 들고 찾아봬야겠습니다.

Letter 08

엔도르핀 할머니

김소연 | 경기도 남양주시 화도읍 비룡로

서른 살 되던 해, 여러 번의 수술을 해야 했습니다. 갑작스러운 병과 수술로 아프고 고통스러웠지만 더 힘들었던 건, 한 번으로 끝날 줄 알았던 수술이 두 번 세 번… 몇 번이나 더 남아 있다는 말을 들었을 때였습니다. 그러면 안 되는 걸 알면서도 곁에서 간호해주시던 엄마에게 짜증을 자주 부렸고 잘 웃지도 말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때 6인실이었던 병실에 알츠하이머병을 앓고 계시는 할머니 한 분이 입원하셨어요. 84세의 할머니는 비교적 간단한 외과 수술을 받고 입원하셨는데 종종 기억이 없다 보니 병실 분들과 한참을 잘 이야기하다가도 갑자기 "아이! 근디 우리 지비(집에) 언제 간당가? 잉? 이제 고만 얘기허고 늦어쓴께 다들 집에 가야쟤. 해지겄네. 아이~?"

그럼 주변에서는 "할머니! 여기가 할머니 댁이니까 오늘은 여기서 주무시면 돼요"하고 말씀드렸지요. 그럼 할머니는 "오메~ 아이고~ 그

려~ 오메~ 글고만 잉~ 잘했네 잘혔어. 아이~ 근디 해지게 생겼는디 우리 집에 언제 간댜. 언능 가야쟤. 어쩌까잉~ 해지겄네~"하시며 이야기를 무한 반복하셨습니다.

세상 온갖 절망을 다 뒤집어쓴 사람처럼 혼자 가만히 침대에 누워만 있던 그때, 앞 침대에 전라도 할머니가 구수한 사투리로 재밌는 얘기를 한참 하다가 뜬금없이 집에 가자는 얘기를 몇 분 간격으로 계속하시는데 그 모습에 갑자기 저도 모르게 웃음이 났습니다.

"아이고~ 날씨가 오늘 참 좋네. 이런 날 빨래 널으면 잘 마르겄어. 예전에는 추운 겨울날에도 개울가 나가서 얼음 깨서 그 시린 물에 빨래하고 그랬는디 지금은 세상이 좋아져서 세탁기만 돌리면 알아서 건조까지 잘 해중께 얼매나 좋은 세상이여."

"맞아요 할머니, 할머니도 힘들게 빨래하시며 사셨구나. 우리 엄마도 그러셨다던데."

"아이고, 그 시절엔 다 그랬쟤. 어디 안 그런 사람 있었간디. 그려도 옷 빨래는 양호혀. 이불이라도 빨라쳐봐 손발이 떨어져 나간당게. 이불이 얼음덩어리여 얼음덩어리. 근데 그늠의 이불 빨래를 꼭 겨울에 시켰당게 시어매가. 참말로 힘들었쟤."

"아이고~ 진짜로 힘드셨겠다. 우리 할머니~."

"잉~ 그려그려~ 참말로 힘들었어. 아이~ 그런디…."

"예? 할머니~."

"우리 집에는 언제 간당가~ 잉~ 언능 가야쟤~ 해지게 생겼네. 아이고~ 일났네 일났어~."

"할머니~ 오늘 여기서 주무시고 가셔요. 여기도 할머니 집이에요."

"오메~ 그려! 아이고~ 그래꾸만~ 그려써~ 암 그래야쟤 그래야쟤~ 그런디 우리 집에는 언제 간다냐잉~ 언능 가야는디. 해지게 생겼네.

우쩌믄 조으까~.”

“아이고, 우리 할머니~ 기억이 돌아오셨나 보다 하고 방심하면 보란 듯이 딱 이러시네. 우쩌믄 조으까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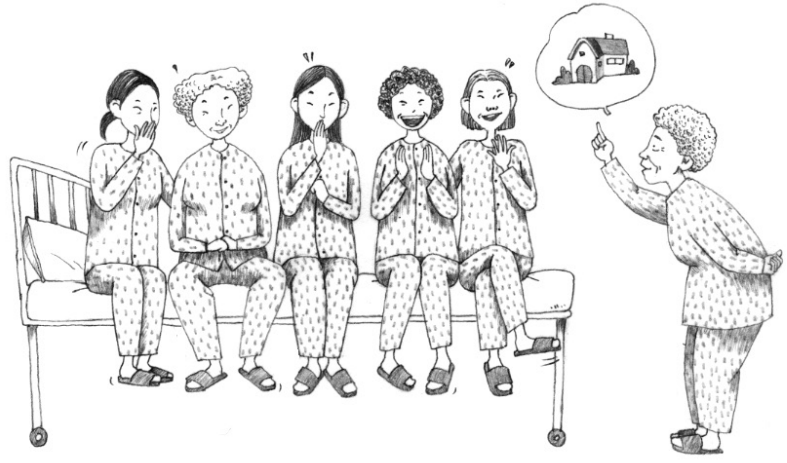
그때 저는 수술한 지 하루도 안 지난 때라 숨만 쉬어도 통증이 심했는데 할머니 덕에 웃음이 터졌고 제가 웃으니까 아픈 딸 걱정에 병원 사람들이 다 웃어도 혼자만 못 웃던 엄마가 편안하게 한참을 웃으셨지요.

할머니의 병은 가슴 아팠지만 할머니의 유쾌한 입담과 아이 같은 천진함 때문에 우리 모녀뿐만 아니라 병실의 모든 환자, 할머니의 보호자 분들도 웃음 짓는 순간이 많았습니다.

우린 모두 그런 할머니를 잘 챙기고 좋아했어요. 할머니께서 갑자기 사라지실 때도 있었는데 그러면 온 병실 사람들이 놀라서 내 일처럼 병원을 뱅뱅 돌며 할머니를 찾았지요. 저 역시 무거운 피 주머니를 주렁주렁 매단 채 힘든 줄 모르고 뛰어다녔습니다. 회복을 위해서 운동해야 할 때는 5분만 걸어도 지치고 힘들었는데 할머니를 찾아 나설 때만큼은 제 몸 상태도 다 잊었던 것 같아요.

할머니는 시간이 날 때마다 청소를 해야 한다며 병원에서 링거병을 걸어놓는 폴대를 양손으로 잡고 병원 구석구석 작은 각도 놓치지 않고 꼼꼼하게 움직이셨고, 저는 그런 할머니를 보면서 할머니가 아프시기 전에는 참 깔끔하고 손끝이 야무진 예쁜 분이셨겠다는 생각을 하곤 했습니다. 연세가 같으셨던 우리 할머니 생각도 많이 났지요.

종종 누워 있는 제 곁에 오셔서 “아이~ 이렇게 애기 같은디~ 어디가 그러코롬 아파서 이렇게 누워 있다냐. 아이고, 내 맴이 다 아프네. 우야꼬. 애기가 왜 아프다냐” 하며 먹먹한 이야기를 하다가도 “아이~ 근디~ 우리 집에는 언제 간다냐. 이제 곧 해질건디~” 하시던 할머니.



퇴원하던 날에도 병실 복도에서 ‘무궁화꽃이 피었습니다’를 하는 아이처럼 뒤돌아 해맑게 웃으며 “나 집에 갔다가 내일 또 오께 잉~” 하며 끝까지 저희에게 웃음만 주셨던 할머니를 저희는 ‘엔도르핀 할머니’라 불렀습니다.

“정말 정말 보고 싶지만 다시는 병원에 오시지 마세요~”라고 인사하며 헤어졌던 항상 병실에 웃음이 끊이지 않게 해주셨던 엔도르핀 할머니. 늦었지만 정말 정말 감사했어요. 덕분에 저도 빨리 회복해서 지금은 건강하게 잘 지내고 있습니다. 문득문득 할머니 생각이 나요. 고맙습니다. 엔도르핀 할머니.

Letter 09

문자로 하는 대화

권순임 | 서울 양천구 남부순환로

청년은 흰색 티셔츠에 까만 모자를 쓰고 있었다. 자그마한 키에 호리호리한 몸매였고 등에 큼직한 백팩을 메고 있었다. 차림새로 보아 순한 대학생 같았다. 청년이 우리 집 대문 안에 들어설 때의 첫 느낌이다.

남편의 퇴직을 앞두고 노후 준비로 작은 단독 주택을 마련하였다. 1층과 2층은 월세를 놓고 우리는 3층에 산다. 청년은 1층 방을 보러 왔다. 청년은 가볍게 묵례를 하고 문자를 보내왔다.

〈제가 청각 장애인입니다. 문자로 대화를 부탁드립니다.〉

청년과의 첫 대화였다. 청년은 내부를 꼼꼼히 살펴본 후 전기, 수도, 가스 요금은 어느 정도인지를 문자로 물었다. 대충 어느 정도 나오는지를 문자로 보냈고 곧 계약했고, 한 지붕 밑의 가족이 되었다.

처음 독립한 청년은 이것저것 필요한 물품이 많았다. 이삿날부터 각종 물품이 택배로 오기 시작했다. 택배 기사는 문을 쾅쾅 두드리지만 청년은 듣지 못했다. 어느새 나의 귀는 1층을 향해 쫑긋 세우고 있었다. 그리고 택배가 오면 〈택배 왔으니 문 열어 주세요.〉 문자를 보냈다. 온종일 택배 알림 일을 하자니 쉬운 일이 아니었다. 그래서 택배 시킬 때 도착 문자를 달라는 메시지를 미리 남기면 어떻겠냐고 제안했다. 청년은 이미 그렇게 하고 있는데 기사님들이 급해서 확인하지 않는 것 같다고 했다.

가스레인지 연결도 해야 하고 공과금 명의 변경 그리고 주소 이전도 해야 하는데 문자로 대화하기는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다. 먼저 가스레인지 연결이 급한 것 같아 서비스센터에 전화했다. 서비스센터의 답변은 이러했다.

"가스 연결 후 바로 명의 변경을 해야 하는데 기사님이 바빠 일일이 문자로 할 수 없으니 집주인이 도와야 해요."

그리고 전기, 가스 요금 명의 변경은 자동이체라는 금전적인 문제가 있어 본인 아니면 안 된다고 했다.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할지 많이 고민했다. '아! 인터넷이 있었지.' 왜 인터넷 생각을 인제야 했는지 내 머리를 쥐어박았다. 청년에게 공과금 고지서를 건네주면서 인터넷으로 명의를 변경하라고 설명해주었다.

이틀 후 세탁기가 왔다. 나이 지긋한 기사님이 문을 쾅쾅 두드리며 들릴 듯 말 듯 욕을 반복했다. 세 살 어린아이 밖에 내놓은 듯 불안하고 안타까웠다. 불안한 마음에 세탁기 설치를 마칠 때까지 함께했다. 장애인을 무시하는 듯한 언어와 행동이 이어지고 있었다. 자신이 할 일을 청년에게 시키고 있었다.

"이것 좀 들어. 이 박스 좀 밖으로 내놔."

반말로 퉁명스럽게 명령조로 말하는 기사에게 화가 났다. 설치를

마친 기사님은 박스와 스티로폼을 분리하여 직접 버리라고 했다. 순간 나도 모르게 화가 치밀었다.

"기사님, 이거 기사님이 가져가야 하는 거 아닌가요? 새 세탁기를 사면 버리는 세탁기까지 모두 치워야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제가 잘못 알고 있는 건가요?"

단호하게 말했다. 기사님은 안 되겠다 판단을 했는지 "아예 죄송합니다. 제 차에 짐이 많이 실려 있어서요" 하면서 쓰레기까지 모두 차에 실었다. 약자를 보호해야 하거늘 무시하고 업신여기는 그 모습에 지금도 화가 난다.

청년은 명절에도 부모님 댁에 가지 않았다. 무슨 사연이 있는 걸까 궁금했지만 명절 음식을 나누는 것으로 궁금증을 대신했다.

귀가 들리지 않고 말을 하지 못하니 얼마나 답답할까? 그것은 내 생각일 뿐이다. 그 청각장애 청년은 당당하게 직장 생활하고, 인터넷으로 소통하고, 문자로 대화하고, 얼마 전에는 예쁜 여자 친구도 생겼다.

우리는 세입자가 사는 동안은 절대 월세를 올리지 않는다. 나는 세입자가 고객이라고 생각한다. 매월 늦지 않고 월세를 꼬박꼬박 입금하니 얼마나 고맙고 소중한 고객인가! 맛있는 음식을 나누고, 옥상에서 막 딴 채소를 현관문에 걸어 놓으면 〈사모님 잘 먹겠습니다.〉 문자가 온다. 이 또한 소소한 행복이다.

우리 동네 이웃들은 세입자가 너무 자주 바뀌어 골치 아프다고 하소연하지만 우리 집 세입자들은 몇 년을 함께하니 정말 고마운 일이다.

Letter 10

술 취한 아저씨

김신애 | 서울 은평구 은평로

아이와 외출을 하면 사람들에게 가장 많이 받는 질문은 "너 몇 살이니?"다. 다행히 일주일 전부터 "네 딸(네 살)"이라는 말을 하게 되어 당당히 말한다. 상대방이 찰떡같이 알아들으면 난이도 높은 질문이 들어온다. "아이고 네 살이구나. 이름이 뭐니?" 그건 아직 말하지 못하는 아이. 눈만 껌뻑이면 엄마인 내가 대신 "온유예요"라고 대답해준다. 사람들의 그런 질문에는 '너 참 귀엽다'는 의미가 담겨 있어서 그냥 웃고 넘기는 편이다.

그러던 어제저녁, 마을버스를 타고 집에 오던 길에 술 취한 아저씨를 만났다. 술에 취해서 얼굴이 뻘겋고 비틀거렸다. 술에 찌든 향이 확 끼쳐서 불쾌했다. 험상궂게 쿵쿵 거리면서 걸어오다 내 아이를 보고 씩 웃으며 말을 건다.

"너 몇 살이니?"



거리를 두는 나와는 다르게 4살 아이는 경계심 없이 대답한다.

"네 딸."

"아이고 이쁘다. 내 옆에 앉아 봐봐" 하면서 아이의 팔을 끈다. 이래도 되나 잠깐 망설이고 있었는데 다른 곳에 앉아 있던 청년이 황급히 아저씨를 제지한다. "아빠, 하지 마. 손 놔. 가만히 있어" 하고는 나와 아이에게 정중히 사과한다.

"죄송합니다. 아버지가 술을 많이 드셔서요."

"야 인마! 그냥 물어만 본 거야. 빡빡하게 왜 그래? 그래 너 잘났다!"

"아빠 쫌!"

그런 실랑이를 보고 있자니 돌아가신 아빠 생각이 나서 울컥 목이 시큰해졌다. 아빠보다 키가 한 뼘쯤 더 큰 그 아들이 예전에 나 같아서 마음이 스산해졌다. 나도 그때는 아빠의 보호자가 될 수 있다고 자만했다. 아빠가 술에 취해서 비틀거릴 때 미웠다. 아빠가 밥벌이가

고단하고 치사하다고 할 때마다 듣기 싫었다. 왜 우리 아빠는 다른 아빠들처럼 잘나지 못해서 늘 전전긍긍 사는 거냐고 원망도 했다. 나는 아빠처럼 살지 않을 거라고 대들었다.

"죽도록 고생하면서 키웠더니 바락바락 대들고. 너 혼자 큰 줄 알지? 다 내 덕이야!"

"당연히 아빠가 낳았으니까 책임져야지. 그게 생색낼 일이야? 날 왜 낳았어?"

그 질문엔 아빠도 할 말을 잃었다. 뱃속에 내 아이가 생기자마자 난 이 질문에 대답부터 준비했다. '살아보니 재밌어. 이 재밌는 세상 너랑 잘 놀고 싶어서 낳았어라고 해야지.' 그런데 아빠가 돌아가시자 이 대답은 의미가 없다는 걸 알았다.

그 아저씨는 잔뜩 심통이 난 아들의 눈치를 보고 있었다. "아들, 옆에 앉아봐라. 쫌!" 아저씨가 자신의 옆자리를 팡팡 치는데도 아들은 꿈쩍도 하지 않고 고개를 돌리고 모른 척했다. 그때 내 아이가 자신에게 말한 줄 알고 그쪽으로 뽀르르 가서 아저씨 옆에 앉았다. 아저씨는 천국을 보는 양 반가워했다.

"하이고~ 이쁘다. 이뻐~." 아이의 작은 얼굴을 아저씨의 투박하고 거친 손으로 감싸 쥐자 그 위로 굵은 눈물이 똑똑 떨어졌다.

"하~ 우리 애도 이맘때가 있었는데. 딱 너만 했지. 너처럼 이뻤어. 미안하다 미안해~." 갑작스러운 사과의 말에 나도 눈물이 떨어졌다. 그 흔한 말에 담긴 회한과 진심을 알기에 가슴이 뜨거워졌다. 아저씨와 나는 둘 다 옷소매로 눈물을 훔쳤다. 버스 안에 때아닌 눈물 바람을 이해 못하는 자식들 두 명이 어리둥절 우리를 쳐다본다.

나는 속으로 그 청년에게 외쳤다. '자식이기만 할 때가 좋은 거야~.' 야속한 세월은 버스를 타고 달려간다.

Letter 11

반찬 가게 이야기

강혜민 | 서울 강서구 까치산로

2017년 10월, 저희 엄마는 광명시장 옆 골목 맨 끝에 작은 반찬 가게를 열었습니다. 원래 반찬 가게를 하려던 것은 아니었고 오빠 아는 사람이 야채 가게 하는 것을 도와주신다고 해서 가게를 얻었는데 자리가 영 아니었는지 가게 오픈하기 며칠 전 그분과 연락이 닿지 않으면서 엄마는 생각에도 없던 반찬 가게를 시작하게 되었어요.

반찬 재료를 사고 다듬고 만들고 소분하고 판매하며 가게를 운영하는 것 전부 다 엄마 혼자의 몫이었어요. 늘 그랬듯이 엄마는 참 열심히 부지런히 최선을 다해 가게 일을 하셨어요.

저와 오빠는 각자의 직장에 다니느라 가끔 가게에 가서 설거지를 돕거나 주말에 같이 있어 주는 것이 전부였죠. 혼자 모든 것을 감당하기에 버거웠던 엄마는 3개월 만에 가게 문을 닫아야 했고, 허리 디스크 수술을 해야 했어요.

그런데 신기하게도 엄마는 몸이 회복되자마자 집 근처 시장에 있는 반찬 가게에서 아르바이트를 시작하셨어요. 집에만 있기 찌뿌둥하고 심심하다며 오후 시간에 잠깐씩만 일을 하겠다고 하셨죠.

그런데 점점 그 가게에서 일하는 시간이 늘어나더니만 사장님이 분점으로 운영하던 가게를 인수하겠다는 이야기까지 나오게 되었죠. 그런데 이번에는 엄마 혼자서 하는 것이 아니라 오빠랑 가게를 함께하겠다고 했어요.

저는 애초부터 이런 코로나 시국에 무슨 가게냐며, 또 엄마랑 오빠는 서로 성격이 안 맞아서 매일 부딪힐 건데 왜 그렇게 힘든 일을 하려고 하냐고 뜯어말렸습니다.

하지만 사람 일은 정말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라고 제가 뜯어말렸던 그 가게는 여전히 운영 중이고, 저도 지난달부터 그 가게에 출근하고 있습니다. 오빠는 반찬 가게 사장님으로, 엄마는 주방실장님으로, 저는 아직 수습 중인 사원으로 함께 일하고 있어요.

물론 가족끼리 한 공간 안에서 또 종일 붙어서 일을 한다는 것이 쉽지만은 않지만 저는 온 가족이 함께하는 이 시간이 참 즐겁고 행복합니다. 함께 있으면서 새로운 모습도 발견하고, 더 많이 이해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요즈음 저는 원래 이렇게 웃음이 많았나 싶을 정도로 정말 많이 웃습니다. 별 웃긴 일도 아닌데 얼마나 박장대소를 하고 웃는지 최근에는 하도 많이 웃어서 배가 땅기더라고요.

종종 하루의 피로를 소주 한 병으로 위로하던 엄마를 전혀 이해하지 못하던 제가 엄마가 얼마나 힘들게 일하는지 바로 옆에서 보고 직접 체험하게 되니 엄마를 더 많이 이해하게 되었어요.

또 늘 무뚝뚝하고 무섭게만 느껴졌던 오빠가 함께 지내다 보니 그 이면에 있는 장남으로서의 책임감과 소년처럼 순수하기도 한 인간적인 면을 보게 되었습니다.

매일 아침 가게 문을 열고 반찬을 만드느라 정신없이 바쁜 시간에도 엄마는 늘 라디오를 틀고 사람들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입니다. 특히 여성시대에서 나오는 수많은 사연들을 들으며 격한 공감을 하십니다.

아마 이 사연이 흘러나올 때는 엄마와 저는 또 정신없이 반찬을 만들고 있는 시간일거에요.

여성시대를 통해 새로운 한 해를 시작하며 엄마와 오빠에게 꼭 해주고 싶은 이야기가 있습니다.

엄마! 오빠!

나는 가게가 잘 되는 것도 물론 중요하지만 우리가 함께 지내는 이 시간들이 참 소중하고 또 감사해. 그때 말했던 것처럼 더 많이 웃고, 더 많이 행복하고, 더 많이 감사하며 2022년을 지냈으면 좋겠어. 서로 고집과 성질을 조금씩만 줄여보자고. 매일 의견충돌로 큰소리가 나긴 하지만 그 소리보다 웃음소리가 더 많아지는 반찬 가게가 되기를 기대해.

엄마, 오빠 사랑해. 올 한 해 건강하게 반찬 만들어서 팔자.

Letter 12

사랑은 무슨 색일까?

하수진 | 전북 익산시 선화로

아침밥 먹고 학교에 간 아들에게서 전화가 온 건 8시 30분쯤이었다. "엄마, 배가 칼로 찌르는 것처럼 아파요." 당황한 나는 맹장인가 싶어 당장 택시를 타고 집으로 오라고 했다. 부랴부랴 신발을 꿰차고 계단을 구르듯 내려가며 담임선생님과 통화를 했다. 택시를 타면 금방 올 거리인데 아이가 보이지 않는다. 전화도 받지 않는다. '이 녀석이 아파서 길바닥에 쓰러졌나?' 온갖 생각이 다 드는데 저 멀리서 아들 녀석이 보인다. 지갑을 놓고 가서 걸어왔단다.

"아이구 답답아~ 도착해서 엄마가 주면 되잖니."

"아, 그 생각을 못했네요."

아파하는 아들을 데리고 병원에 가니 다행히 맹장이 아니었다. 스트레스와 체질에 맞지 않는 유제품 때문에 복통이 온 것 같다는 말에 아들의 얼굴이 더 기운 없어 보이고 안쓰러웠다. 온 김에 영양제

라도 한 대 맞추려고 병실로 데리고 가니 아이는 긴장이 풀렸는지 가늘게 코를 골며 잠이 들었고 간호사 선생님이 한 3시간 걸릴 거라고 했다.

아이의 옆 침대에는 64세의 여성분이 누워 계셨는데 치매가 오셨단다. 인지능력도 없고 마를 대로 마른 몸에 드시질 못하여 영양제라도 놔 드리려고 오셨단다. 남편으로 보이는 인자한 성품의 아저씨는 부인을 연신 쓰다듬고 말을 걸다가 잠시 볼 일이 있으신지 내게 부탁을 하셨다.

"기저귀를 차고 있으니 화장실 걱정은 안 하셔도 돼요. 자다가 한 번씩 깜짝깜짝 놀라는데 그때 안정만 좀 시켜주시면 됩니다. 오른손에 곰 인형을 쥐고 있는데 그 인형이 떨어지면 좀 쥐어주세요. 움직이질 못하니 큰일은 없을 겁니다."

"저, 혹시 말을 알아들으시나요?"

"아니요 못 알아듣습니다. 그럼 부탁합니다. 금방 올게요."

아저씨가 나가시고 나는 아주머니 옆에 자리했다. 일단 손을 깨끗하게 씻고 요양보호사 자격증을 취득할 때 배웠던 것들을 하나하나 떠올렸다. 의식이 없다고 알아듣지 못하는 것 같아도 인간의 청각은 가장 나중까지 살아있으니 좋은 말만 듣도록 해야 한다는 것. 치매가 있어도 기억이 돌아올 때가 있으니 자신이 누구인지를 소개하고 돌볼 것. 마침 아주머니가 이리저리 눈동자를 굴리신다. 깜짝 놀라셨는지 눈물이 한 방울 흘러내린다.

"안녕하세요. 아주머니, 저는 하수진이예요. 아저씨께서 선생님을 잠시 부탁하고 가셨어요. 볼일 보고 금방 오신대요."

또 눈물 한 방울. "제가 손 잡아드릴게요. 그런데 제 손이 좀 차가워서요. 조금 전에 손은 깨끗이 씻었어요."



나는 이불 밑으로 손을 넣어 아주머니의 야윈 손을 잡아드렸다. 아주머니의 어깨를 토닥이고 쓸어드리고 눈물이 흐르는 볼을 닦아드렸다. 참 곱고 아름다운 얼굴. 무엇이 아주머니를 치매에 이르게 했을까? 저 곰 인형은 아주머니에게 무엇이기에 꼭 쥐고 놓지 않으실까?

"아저씨께서 선생님을 많이 사랑하시는 것 같아요. 주무시는 동안 내내 바라보고 얼굴을 쓰다듬다가 가셨어요."

아주머니의 눈동자가 또 다시 흔들린다. 까무룩 잠이 든 아주머니가 살며시 눈을 뜨실 때마다 나는 알아들으시는지는 알 수 없지만 날씨 이야기며 내가 일하는 마트 이야기 등을 조금씩 해드렸다. 한 시간 후쯤 아저씨가 오셨다. 내가 아주머니 곁에 앉아있는 걸 보더니 물으신다.

"혹시 무슨 일이 있었나요?"

"아니요. 자다 깨서 놀라시기에 손을 좀 잡아드렸어요."

안심한 표정의 아저씨는 아주머니 손을 잡고 얼굴을 쓰다듬으며 이런저런 이야기를 해주신다. 수액의 잠금장치를 조절하고 간호사와 이런저런 조치를 하는데 또 아주머니가 우셨다.

"왜 울어 바보같이. 내가 옆에 있잖아. 많이 아파? 힘들 텐데 잠 좀 자. 여보~."

"아까 선생님 나가시고 난 후에도 잠깐 우셨어요."

"아, 그래요? 여보, 금새 내가 보고 싶었어?"

말씀이 참 온화하고 따듯했다. 사랑이 있다면 무슨 색일까? 보통 심장 모양의 빨간색 하트로 사랑을 표현하는데 어쩌면 사랑은 무채색이거나 하얀색이 아닐까 싶다. 채우면서 색색으로 곱게 그려 나가는 사랑의 색깔.

아이와 아주머니의 수액이 비슷하게 떨어졌고 아저씨가 아주머니를 휠체어에 태울 준비를 하신다. 나는 옷을 편히 입히실 수 있게 배운 대로 허리와 손을 지지해 드렸다. 아저씨는 깃털처럼 가벼운 아주머니를 안아 올려 사뿐히 내려 놓으셨고 신발을 신기셨다. 나는 점퍼의 지퍼를 올려드리고 모자를 정돈해 드렸다. 문을 나서는 아저씨께서는 내게 말없이 눈인사를 건네셨고 나도 말없이 문을 열어드리고 목례를 했다. 굳이 말로 하지 않아도 되는 어떤 느낌.

아이를 데리고 북부시장 남중동 파출소 근처에 있는 남파앞 팥죽집으로 가서 새알 팥죽을 한 그릇씩 먹었더니 오후 2시 30분. 얼마나 다행인가? 맹장이 아니어서. 마침 내가 휴무일이어서. 아이가 아니었으면 겪지 못했을 소중한 하루.

아주머니의 치매가 끝까지 고운 치매이기를….

Letter 13

은퇴 후 계획

전명원 |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매탄로

새해 들어서며 일을 그만두었다. "일생 돈이 되는 일을 했으니 이제 돈이 벌리지 않아도 남은 인생은 내가 하고 싶은 일을 하며 살아보겠다"라고 거창하게 굴었다.

아직 회사에 다니는 친구에게 은퇴 후엔 뭘 할 계획이냐 물었던 적이 있다. 그의 대답은 확고했다.

"그냥 놀 거야!"

은퇴 이후 인생의 후반전을 준비하라고들 한다. 그 후반전이 그저 '노는 것'일 수도 있는 것이다. 일생 놀아보지 않은 사람에게 은퇴 이후의 노는 삶은 그 나름대로 또 새로운 일이 아니던가 말이다.

나 역시도 하고 싶은 일이 있었다. 나는 글을 쓰고 싶었다. 하지만 돈이 되는 글을 쓸 재주는 없는 것이 문제였다. 해보지 않았으니 모를 일 아닌가 싶지만 역시 자신 없는 사람의 핑계이다. 이렇게 꿈 앞에서

소심했던 나는 은퇴한 이후에 책을 읽고 글을 쓰겠다고 했다.

은퇴를 하고 나면 단조로운 일상이 되지 않을까 싶었던 마음도 없지 않았다. 어제가 오늘 같고 오늘이 내일 같지 않을까도 했지만 막상 은퇴를 해보니 또 다른 세상이 펼쳐졌다.

운동이라면 숨쉬기 운동이 최고라고 하던 내가 은퇴하고 어느 날 갑자기 매일 걷기 시작했다. 일도 체력이 있어야 하니 운동해야 한다는 소리엔 항상 출근해야 하니 귀찮다는 핑계를 댔던 나인데 말이다. 출근해야 하니 다 귀찮다는 핑계가 없어지자 그 싫어하던 걷기가 문득 좋아졌다. 걷다가 봄이 오기 직전의 함박눈을 만났고, 걸으며 개나리가 피고, 벚나무가 푸르러지는 것을 보았다. 운동을 그렇게나 싫어하던 사람이었는데 싫은 것이 좋아지는 날도 온다는 것을 알았다.

아무리 싫은 것이 좋아져도 일하는 것이 다시 좋아지지는 않았지만 이제 일하는 사람들의 새로운 모습도 보이기 시작했다.

일할 때에는 모든 것의 기준이 수입이었다. '저거 돈이 되나?' 이런 식이었다. 물론 사람들은 돈을 벌기 위해 일한다. 돈이 전제가 되지 않는 일은 일이 아니라 취미일 테니 말이다. 그러나 개중에는 자기가 좋아하고 꼭 해보고 싶은 일을 위해 과감하게 도전하는 사람들도 있었다.

책을 좋아해서 다니던 직장을 그만두고 작은 독립서점을 열었다는 여자분은 테이블 서너 개짜리 작은 서점에서 늘 새로운 시도를 했다. 맛있는 조합의 디저트를 개발하고, 그 작은 곳에서 과연 가능할까 싶었지만 독특한 전시까지 해내는 것을 보며 속으로 감탄했다.

직장을 2년간 휴직하고 계속 업으로 할 것도 아닌 공유 서재라는 낯선 공간을 운영하는 사람도 있었다. 20개월의 휴직기간 동안만 팝업스토어처럼 운영할 공간을 위해 낯선 곳의 폐가를 사서 뜯어고치며 멋진 공간을 만들어냈다. 그 공간은 그의 꿈이었던 것이 분명하다.

딸린 식구가 없고, 아이가 아직 어리고, 무엇보다 그들이 젊기 때문에 과감하게 시도해 볼 수 있는 것일까 생각했던 적도 있다. 하지만 꼭 나이가 이유가 되는 것은 아닌 듯하다.

성인이 된 자녀를 둔 이웃 분은 근처에서 원 테이블 식당을 운영하신다. 브레이크 타임도 있는 그 작은 공간에 놀러 오라고 하며 내게 말했다.

"내 놀이터예요!"

그녀의 그 당당한 자신감이 멋있었다.

물론 그들의 삶에 현실이 개입되지 않을 리는 없다. 책이 팔리고 사람들이 오고 음식 주문을 받아야 그 공간도 유지가 될 테니 말이다.

하지만 은퇴를 한 이후에 사람들의 일하는 모습을 보니 나의 지나온 시절에 대한 생각도 다시 한번 해보게 되었다. 나는 여전히 일이 더 이상 하고 싶지는 않았다. 하지만 지난 시간 동안 내가 덜 노력한 것은 없었을까. 혹여 지금이 나중에 또 다른 후회로 남지는 않을까 하는 일말의 두려움이 전혀 없다면 거짓이다.

일하느라 바빴던 시절에는 모든 핑계가 "바빠서, 시간이 없어서"였다. 반은 맞고 반은 핑계다.

백수라 쓰고 자유인이라 나름 만족해하는 나날을 보내며 만보를 걷던 어느 날이었다. 길을 걷는 사람들의 저마다 다른 발걸음이 보였다. 바쁘게 총총걸음으로 지나가는 사람도 있었고, 느긋하게 엿가락처럼 늘어진 발걸음을 옮기는 이도 있었다. 어떤 이는 일터를 향해 가는 것이 분명한 발걸음을 하고 있었고, 또 다른 이에겐 운동을 하는 아침이 분명한 발걸음이었다.

모두 그런 것은 아니었지만 바쁘게 어디론가 가는 이는 젊은이들이

많았고, 산책하는 발걸음은 대부분 중년 이후의 사람들인 경우가 많았다.

걸음의 속도가 보이기 시작하자 느긋하게 내 속도로 걷던 나는 갑자기 마치 일이 있었는데 잊고 있었다는 듯 종종걸음으로 바쁘게 걸었다. 그러다 횡단보도를 만났고 신호등을 바라보며 잠시 멈추었을 때, 그제야 나의 속도에 대해 생각했다.

나도 멈추거나 쉴 시간 없이 부지런히 뛰듯 걷는 시간이 있었다. 핑계가 대부분이었지만 바빠서 운동은 못하겠다고 나중에 은퇴하고 시간 많아지면 그땐 느긋하게 산책도 하고 살아야지 했다. 하고 싶지만 돈이 안 될 것 같은 일도 은퇴하고 해야지 했다.

시간은 누구에게나 똑같다. 은퇴 이후의 시간이 하루 48시간이 된 것도 아니고 12시간으로 줄어든 것도 아니다. 나의 속도, 나의 발걸음을 잊지 않는 것이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었다. 그러니 다른 이의 발걸음을 따를 필요도 없고 지나온 발걸음의 속도를 다시 떠올릴 필요도 없는 것이다.

해가 저무는 창밖을 보며 생각한다.

'내일은 그 작은 서점에 가보아야겠다. 수다쟁이 요리사의 음식점에서 한 끼를 먹어도 좋겠네.'

그 공간들은 그들의 꿈일 것이다. 마찬가지로 하루 중에 잠깐, 그 공간에 머무는 나 역시 그러한 시간을 보내는 것이 내가 꿈꾸던 것이다. 그러니 그 어떤 자리에서 그 어떤 모습으로 그 어떤 시간을 보내든 내가 만족하는 시간은 그 자체로 충분하다.

나는 이렇게 오늘도 또 다른 풍경 속으로 들어간다. 나만의 속도로 뚜벅뚜벅.

Letter 14

'늘푸른바다'는 순항 중

노칠환 | 울산광역시 중구 약사로

코로나 덕분에 자유인 자연인으로 돌아간 것이 취소되고, 아내 덕분에 진장회수산센터에서 다시 '늘푸른바다'호가 출항한 지 한 달이 지났다.

우연이었지만 운 좋게도 개업하는 날 MBC 라디오 여성시대에 방송이 되는 덕분에 장안의 화제가 되면서 개업 특수를 톡톡히 누렸고 방송의 위력을 생생하게 경험할 수 있었다.

개업 날 가까운 경주에서 일부러 찾아왔다는 애청자가 여럿 있었고, 대구에서 일부러 찾아온 애청자도 있었으니 고향이자 본거지인 울산 사람들의 문전성시는 두말하면 잔소리가 될 것이다.

한 달이 지났지만 여성시대의 위력은 여전히 이어지고 있다. 이 글을 쓰는 어제도 중년 여성이 사위와 딸과 함께 와서 "여기가 여성시대에 나온 집인가요?" 하셔서 내가 "예~"라고 대답하자 "어머나! 어머

나! 여기 정말 오고 싶어서 찾아왔어요. 저의 첫 연예인이에요" 말씀하시는 것이다.

운 좋게 개업과 동시에 방송 탄 덕분에 손목이 아프고 어깨가 아파서 전용 안마기를 구입해야 할 정도로 바빴고, 연예인 아닌 연예인으로 한 달을 지내왔기 때문에 어제의 놀라운 일도 그저 기분 좋은 해프닝으로 지나갈 수 있었다. 그저 감사하고 감사할 뿐이다.

사실, 늘푸른바다 횟집은 복산2동 남운럭키아파트 상가에서 30년 전 배달 회센터로 개업을 했었다. 다섯 평이 채 안 되는 좁은 가게에 동네 선배의 도움을 받아 스테인리스 앵글을 직접 용접하여 만들었었다. 며칠을 고생하여 완성한 수족관에 물을 채웠지만 수족관은 물총처럼 물을 쏘아 대며 나를 조롱했다. 그러나 정작 나를 시련에 빠트린 문제는 수족관의 면적에 비해 너무 두꺼운 유리를 붙인 것이었다. 튼튼하게 만든다고 한 것이 망치로도 깨기 어려운 두께의 유리를 붙였던 것이었다. 결국 큰 해머로 손과 얼굴을 찢어가며 수족관에 부착된 유리를 떼어내야만 했다. 그 폭폭함과 억울한 마음은 지금도 생생하다.

그리고 30년도 더 지나서 새로 제작된 늘푸른바다 횟집의 수족관은 훌륭했다. 10개의 수족관에 횟감이라는 횟감은 종류별로 가득가득 채울 수 있었고 가득 찼던 횟감들은 저녁마다 동났다. 그런데 한 마리 만이천 원도 넘게 사들여 놓은 오징어 스무 마리가 수족관에 들어가기만 하면 시커먼 먹물을 쏘아대며 한꺼번에 죽는 일이 사흘 동안이나 이어졌다.

30년 전, 강구항에서 입찰받아온 총알 오징어 11마리를 만 원에 팔았다. 그때도 오징어를 물차에 실어 나르다 수많은 오징어를 죽여야만 했다. 항구 입찰장 고무 함지에서 싱싱하게 활개를 치던 오징어가

내가 운행하는 물차에 들어가기만 하면 다 죽어 버리는 것이었다. 몇 차례나 지나서 오징어가 죽는 이유를 알게 되었는데 물차의 뚜껑을 덮은 것이 오징어가 죽는 원인이었다. 오징어는 빛이 없으면 서로를 물어뜯어 죽이는 습성이 있는데 물차의 뚜껑을 덮었으니 오징어가 온전할 수 없었다. 오징어를 살려 운반하기 위해 한동안은 도로에 물을 흘리며 다녀야만 했었다. 세월이 지나면서 오징어 운반차에 채광창이 만들어졌다.

그러나 진장수산회센터의 횟집마다 들어간 오징어는 잘살고 있는데 우리 수족관에 들어오는 오징어는 왜 죽는지 알 수가 없었다. 납득하기 어려운 일이 벌어지고 있었다.

오징어의 옛 이름은 한문 까마귀 '오'자가 들어간 '오적어'다. 바다에서 군집을 이루고 이동하는 오징어 떼가 달밤에 까마귀를 보면 죽는다고 해서 붙여졌다는 이야기가 있다.

그리고 숭어를 양식한 것을 '밀치'라고 부르는데 사람들은 왜 숭어를 '양식 숭어'라고 하지 않고 '밀치'라고 부를까? 광어, 우럭, 도다리는 양식과 자연산으로 구분하고 있지 않은가.

내 경험에 의하면 광어, 도다리 등의 넙치 종류는 알이 차는 산란기가 되면 알은 꽉 차지만 살은 쭉 빠져서 가죽만 남는 쭉정이가 된다. 그러나 숭어는 알이 꽉 차 있을 때 살이 꽉 차는 특이한 생선이다. 보리꽃이 피는 봄, 숭어는 감성돔과도 바꾸지 않는다는 말이 있다. 봄 숭어의 살이 빈틈없이 꽉 차서 어떤 생선보다 맛있는 제철 생선이라는 뜻이다. 즉, 밀이 익어가는 계절에 맛이 드는 생선이라 해서 밀치라고 했을 것이다.

내 나이 또래 사람들은 쥐치가 왜 쥐치인지를 알고 있을 것이다. 쥐치는 쥐처럼 소리를 낸다고 붙인 이름이다. 달갱이, 날치, 횟대기의 다

른 이름은 성대다. 성대는 목의 성대에서 소리가 난다고 성대다.

오징어는 수족관을 바꾸어 넣고 여과 시스템을 바꾸자 사흘 만에 안정을 찾았다. 문제는 여과 시스템과 냉각기의 누전이었다.

명촌동 횟집의 주방에서 칼질할 때는 고객들과 자주 마주하지 않아도 되었지만 만인 앞에 공개된 진장동회시장은 달랐다. MBC 라디오 여성시대 때문이기도 하겠지만 회를 사러 온 사람들은 나의 일거수일투족을 면밀하게 쳐다보았고 나도 고객들의 면면을 확인할 수 있었다.

시장은 내가 인식하고 있던 것과는 많이 달라졌고, 사람들의 소비 패턴이 완전히 바뀌어 있었다. 비교적 젊은 사람들은 밀치와 강도다리와 오징어를 즐겨 찾았고, 내 또래의 사람들은 제철 자연산인 방어와 참가자미를 많이 찾았다. 대게와 해산물, 갑각류의 인기도 만만치 않았고, 줄돔과 감성돔의 인기도 좋았다. 가장 흔하게 유통되던 광어와 우럭은 금값으로 치솟았음에도 인기가 좋았다.

비싼 값 때문에 주변 음식으로 배를 채우던 횟집과는 다르게 사람들은 식육점에서 고기를 근으로 사서 먹는 것처럼 회를 근(kg)으로 사 먹었다. 수산 식품이 남녀노소 가리지 않는 전 '국민 먹거리'가 된 것을 확인하는 시간이었다.

2021년 12월 1일 영업을 시작해서 2022년 1월 2일까지 쉴 틈 없이 달려왔다. 3일인 어제 모처럼 한가했고, 오늘 새벽 오랜만에 글을 쓴다. 여성시대 애청자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고파 이렇게 글을 쓴다.

이달의 손편지

힘내요 할배, 아니고 내 남편

김춘옥 | 경남 진주

"내가 정말로 그리 나이가 많아 보이나?"
새해가 되면서 남편이 거울을 통해서
자신의 모습을 보면서 하는 소리라. 20대에
처음으로 이 남자를 만났을 때 이 남자는 숯
검댕이 눈썹에 진한 흑발이 너무나 풍성한
장발머리를 뽐내고 있었지. 그러나 60에 나이를
한참이나 넘어버린 지금은 … 흰머리 카락이
검은머리카락이 더 많은 백발에 가깝다. 그나마
주변머리는 둥글이고 속알 머리까지 없는 머리로
변해버렸다. 이 남자! "인자는 다 틀렸고

좋은세상 다 지나갔다" 며 긴 한숨을 쉬다가
잘못된 한숨을 쉬다가 마음이 안절부절이다.
그러다가 남편은 또 내게 거듭 묻는다. "진짜로
내가 그렇게 늙어보이니? 진짜 할배같니?" 모든
시내에 볼일보러 갔다가 "어르신" 이라 부르는
소리에 충격이 깨나 컸나보다. 그것도 거의
자기 또래로 보이는 아저씨로 부터 들은 소리
란다. "아이고 그건, 몰라서 물나? 이 양반아!
머리숱도 옆는 데라 노나아 있는 머리카락
아저 하얀백발 이니 누가봐도 어르신로 아니고
할배구야!" 하는 소리가 목구멍까지 차고
올라온다. 하지만 나마저 이 낙심한 남자를
인정하고 확신해버리면 더 실망하고 의욕이
떨어질까봐 애써 침착하게 말한다.
"뭐 어때~ 나이를 먹으면 머리카락은 빠지고
하얘 진수로있지. 그리고 저 자식에 형제들

까지 다 검사하고 챙기느라 신경을 너무 많이
써서 빠져버린 머리에 랭찮아. 내 눈에만
좋으면 됐지뭐." 쿨하게 이야기하고 남편에
표정을 보니 노나아 안도하는 느낌이다. 그래도 거울을
볼때마다 지나버린 세월이 일기지 않는지
"야 내가 어쩌다 이리 됐지? 내가 내가
봐도 진짜 어르신같다 내도 모는 거울을
찬찬히 쳐다보니 늙기는 많이 늙었네 청~말
내가 이 정도인지는 몰랐다" "아이고 내가
언제 이리도 늙어버렸을꼬?" 이 남자
한숨소리가 땅속을 라고든다. 알아보며 바보게
사느라고 거울한번 마음놓고 천천히 들여다볼
시간없이 살아온 남편에 지나버린 세월들이
한 몫이 측은하다. 머지않아 70에 가까운
나이지만 아직도 남에 시선을 부러워하고 못하는
아이가 깨나 큰 것 같다.

사랑은 세월이 가고 나이가 들면 몸도 마음도
늙어가고 머리카락도 빠질 수 있는 것을...
그걸 인정하지 못하고 싫어하는 이유가 뭘까?
하지만 남편! 힘내요! 당신 옆에는 나처럼 저기
내가 있고 당신에 머리카락이 좀 없다해도
주박하지 않고 자~알 모실테니 기죽지 마소!.
머리카락이 좀 없으면 어떻고 몸매가 좀
뒤틀려서 청바지가 어울리지 않는다 해도
여전히 지능까지도 우리나라 경제를 한축에서
이끌어 왔고 앞으로도 이끌어가야할 그대서
우리나라 경제의 중심에서 있다고 말하고싶은
우리들! 다~ 멋찼아요.
머리카락이 있으면 있는대로 없으면 없는대로
당당하게 경제 활동 하면서 여생히 살아갑시다.

남편의 생일날에 경남 진주에서 강춘옥

여성시대 사진방



[1441] 집에서 편한 자세로 여성시대 듣고 있습니다.



[2864] 여성시대 들으며 딸기 수확하고 있어요.



[3384] 전북 김제입니다. 꽃 농장에서 꽃과 부대끼고 있어요.



[3283] 군산- 익산 간 철도 건설 현장이에요.



[6257] 오이 따는 작업하고 있어요.



[7251] 아기랑 지나가는 길에 여성시대 달력 발견! 반가운 마음에 찍어 보내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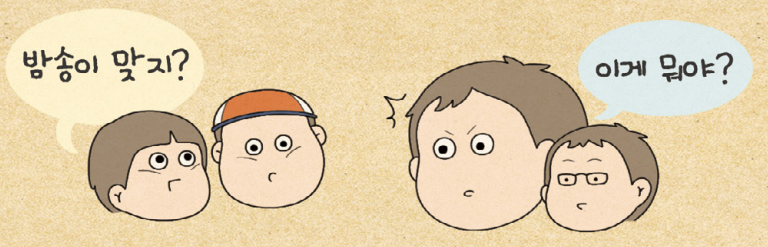
오늘의 추억

글/그림 2B

경기도 안성시
여성시대 가족 최성운 님이
보내주신 사연을 재구성한 내용입니다



동네 산책 중 뚱딴지같은 소리를 하는 막둥이





막둥이가 달려가 멈춘 곳에는
정말 커다란 밤송...
아니 고슴도치가 있었습니다.





한마음으로 졸라대는 아이들과
고슴도치의 눈빛에 마음이 흔들린 저는
조심스럽게 고슴도치를 안아 들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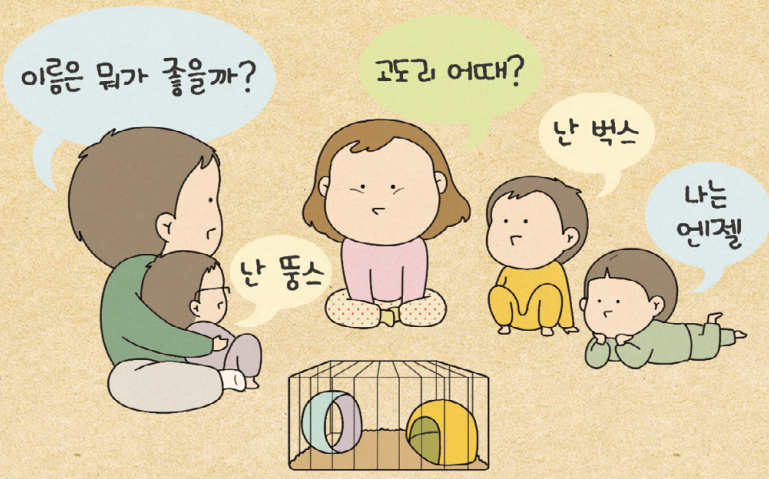
녀석 가시를 세울 기미도 없이 순순히 따라 주더군요.

그렇게 데려온 고슴도치를
따뜻한 물을 받아 목욕도 시키고



미리 아내에게 연락해
고슴도치 먹이와 집을 사다 달라고 부탁했습니다.

그렇게 우리 가족의 첫 반려동물인 고슴도치



고슴도치의 이름은 엔젤이 되었고
우리 집이 마음에 들었는지 이내 스르륵 잠이 들었습니다.

엔젤이 우리 집에 온 지 이제 두 달째
몸무게도 제법 늘고 건강히 잘 지내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 가족 대화 주제 1등이 된 엔젤
앞으로도 무럭무럭 건강히 잘 자라주렴.

행복을 찾는 사람들 1

변화의 흐름을 읽는 기업 무선의 시대에 발맞추다

IBK기업은행 대구한국부동산원지점 거래고객

㈜명성 김명용 대표

글 | **권내리**(자유기고가) 사진 | **이동진**

편리를 추구하는 현대 사회에서 '무선'은 어느덧 필수 키워드로 자리 잡았다. 무선 트렌드 속 ㈜명성은 국내 보조배터리 시장에 활기를 불어넣으며 내공 있는 중소기업으로 급부상하고 있다. 늘 시대의 흐름을 읽으며 변화를 두려워하지 않는 ㈜명성은 그 이름처럼 밝은 미래를 준비 중이다.

명성은 시대의 흐름을 읽을 줄 아는 기업이다. 스마트폰이 보급된 지 얼마 되지 않았던 2012년, 국내 시장에 없던 '보조배터리'를 개발·보급한 기업이 바로 명성이다. 지금은 없어서는 안 될 물건이지만 2012년 당시만 해도 보조배터리는 흔히 볼 수 있는 물건이 아니었다. 그 시절에는 카페, 도서관 등의 전기 콘센트에 충전기를 꽂으려는 사람들의 경쟁이 치열했다. 김명용 대표는 이런 현상을 보며 앞으로 도래할 '무선'의 시대를 예견하고 보조배터리를 개발했다. 곧 스마트폰이 일상생활에 없어서는 안 될 필수품이 되면서 보조배터리 수요는 폭발적으로 증가했다. 변화의 맥을 짚어내는 김명용 대표의 선구안이 빛을 발한 것이다.

명성은 2018년에 대구의 스타기업으로 선정되며 R&D가 가능한 기업으로 거듭났다. 스타기업으로 선정되면 국가 보조금을 지원받아 기업이 직접 연구·개발을 할 수 있는 여건이 갖추어진다. 김 대표는 "생각만 하던 제품들을 직접 개발할 수 있게 되면서 거래 유형이 기업 대상에서 소비자 대상으로 전환됐어요. 그게 명성의 큰 변곡점이 되지 않았나 생각합니다."라며 명성의 성장 동력에 대해 설명했다.

R&D가 가능해진 후 명성은 '쿨린 허니콤 선풍기'를 개발했다. 허니콤 선풍기는 벌집 구조 설계로 바람의 자극은 줄이고 시원함은 극대화했으며, 바람의 유동 해석을 통해 과학적으로 제작되었다. 이는 소음이 적고 충전까지 간편해 명성의 기술력을 톡톡히 증명하는 상품이다. 이런 주체적인 상품 개발과 함께 온라인 시장이 활성화되며 명성은 소비자 대상 거래를 중심으로 하는 B2C 기업으로 탈바꿈할 수 있었다.

IBK기업은행 대구한국부동산원지점 김혜정 지점장은 김명용 대표와의 인연이 닿기 전부터 명성을 건강한 기업이라 생각하고 있었다. 김 지점장이 대구 비산동 지점 팀장을 지내던 시절, 괜찮은 기업의 대표가 기업 거래 없이 개인 거래만 하는 것이 못내 아쉬웠다고 한다.







이후 그가 대구한국부동산원지점의 지점장으로 부임하게 되었을 때 김명용 대표의 명성이 근처에 있다는 사실을 들었고 곧장 김 대표에게 점심을 제안했다. "식사를 같이 하며 명성에 보탬이 되고 싶다고 말씀을 드린 것이 계기가 되어 지금의 동업자 관계가 됐어요." 김혜정 지점장은 먼저 거래를 제안한 만큼 명성을 물심양면으로 도와주고 있다. 김명용 대표도 IBK기업은행의 친기업적인 금융시스템이 명성의 기술 개발과 마케팅에 큰 도움이 되어 기업이 성장할 수 있었다고 진심을 표했다. 나이대가 비슷하고 성격도 잘 통해 친구처럼, 동업자처럼 사이좋게 지낸다는 김혜정 지점장과 김명용 대표는 서로에게 윈윈이 되는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 끊임없이 노력하고 있다. 김 대표는 동반성장의 조건으로 기업의 안정적 성장을 꼽으며 기업이 성장할 수 있도록 좋은 조건으로 거래를 잘 부탁한다는 너스레를 떨기도 했다. 이에 김혜정 지점장도 그럴 준비가 다 되어있다며 함께 성장하자는 의지를 다졌다.

김명용 대표의 사무실에는 '생각하고 마음먹은 대로 일이 이루어진다'는 뜻의 한자성어 '심상사성(心想事成)'이 걸려 있다. 타인에게 피해를 주지 않는 선에서 마음먹은 대로 다 이루리라는 김 대표의 포부가 담겨 있는 말이다. 명성은 앞으로도 보조배터리, 핸디선풍기, 가습기 등 무선가전 분야로의 발전을 도모할 계획이다. "소형가전 시장에서 확실히 자리매김할 수 있는 건강한 기업으로 성장하는 것이 목표입니다"라는 김명용 대표의 말에서 명성의 이름과 같은 밝은 미래가 그려진다.





㈜명성 김명용 대표(왼쪽)와 IBK기업은행 대구한국부동산원지점 김혜정 지점장

㈜명성 김명용 대표의 운영 노하우

1. 시대의 흐름을 읽어라.
2. 고객의 니즈를 파악하라.
3. 발빠르게 움직이라.

㈜명성
대 표 김명용
전 화 1588-8996
주 소 대구광역시 동구 이노밸리로44
홈페이지 www.gift.kr

환자에게 딱 맞는 치료법을 찾아서

IBK기업은행 일곡지점 거래고객
순천우리병원 김한웅 원장

글 | **권내리**(자유기고가) 사진 | **이동진**

분주한 발걸음으로 인터뷰실에 들어온 김한웅 원장은
가쁜 숨을 내쉬면서도 열정적으로 인터뷰에 응했다.
김 원장이 몸담고 있는 곳은 호남 동부권 최대의 척추질환 병원인
순천우리병원. 10명의 환자가 있다면 10명의 치료법을 찾아 가장
적절한 처방을 내리는 것이 병원의 중요한 의무라고 말하는
김한웅 원장과의 대화에서 환자를 위하는 마음이 물씬 느껴졌다.

순천우리병원은 척추 디스크 전문 병원이다. 전문화 시대에 걸맞게 척추·디스크라는 한 가지 분야를 심도 있게 다루며 순천 내 척추 디스크 병원의 중심을 잡고 있다. 순천우리병원에는 끊임없이 발전하는 현대 의학을 선도하는 병원이라는 자부심이 있다. 그 자부심 속 김한웅 원장은 환자에게 가장 알맞은 방법으로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병원의 핵심 의무라 말한다. 간단한 시술만으로 치료할 수 있는 환자를 수술하거나, 수술이 꼭 필요한 환자에게 시술이나 약물치료만을 처방해서 안 된다는 뜻이다.

김 원장은 의사로서 가장 뿌듯했던 때를 묻는 질문에 90대 환자분의 수술을 성공적으로 마쳐 고통을 덜어줬을 때라고 답하며 당시를 회상했다. “까다로운 케이스였는데



도 수술을 성공적으로 마쳐 환자도, 보호자도 고마움을 표했을 때 의사로서 정말 뿌듯했어요.” 그는 환자를 치료하는 매 순간이 뿌듯하다며 힘든 순간과 뿌듯한 순간은 늘 함께 온다고 말했다. 힘든 순간을 잘 넘겨야 비로소 뿌듯한 순간이 찾아오기 때문이다. 그렇기에 환자를 대할 때는 그 어떤 순간도 허투루 보낼 수 없다. 매 순간 최선을 다해야 한다.

순천우리병원에서는 진료뿐만이 아닌 척추 및 디스크에 관한 강연도 월 1회씩 진행하고 있다. 정보를 얻는 것은 너무나도 쉬워졌지만 그 진위를 파악하는 것은 힘들어진 요즘, 순천우리병원은 환자들에게 올바른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월 1회 강연을 개최한다. “진료를 받아야 한다는 부담감 때문에 병원으로 향하는 발걸음이 무거운 환자들이 많아요. 그런 분들이 가벼운 마음으로 와서 의학 정보를 얻어 갈 수 있는 소통의 장을 마련하고 싶었습니다.” 병원에 오는 환자들뿐 아니라 오지 못하는 환자들까지 챙기는 김 원장의 세심함에서 그가 환자를 대하는 마음을 짐작할 수 있었다.

지금은 순천 척추 치료의 중심으로 자리 잡은 순천우리병원이지만, 이런 순천우리병원도 지금의 자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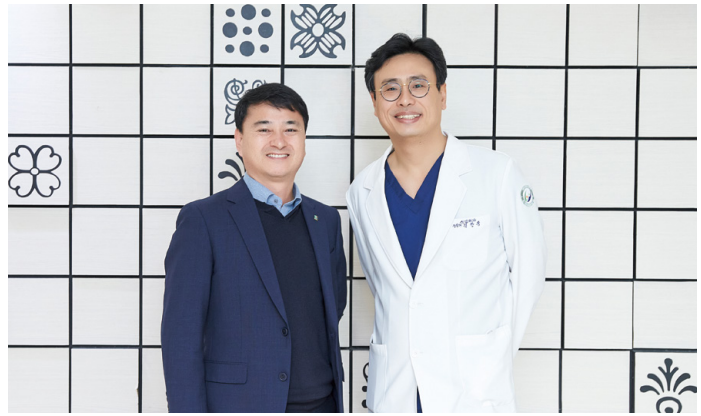


에 오기까지 많은 우여곡절이 있었다. 순천우리병원은 광주 새우리병원에 소속되어 있다가 2010년에 분리 독립되었다. 어느 단체나 그렇듯 순천우리병원도 초기에는 재정적으로 넉넉하지 못했다. 이때 손을 내민 곳이 IBK기업은행이었다. IBK기업은행 일곡지점의 김수연 지점장은 '메디컬 네트워크론'이라는 병원 대상의 금융 상품이 순천우리병원과 잘 맞아떨어져서 서로 도움이 되는 관계를 구축할 수 있었다며 양측의 인연을 설명했다. 김한웅 원장은 보다 나은 진료를 위해 필요한 첨단 의료기기를 구입할 때 IBK기업은행의 도움이 컸다며 늘 고마운 마음이라 전했다. 그는 언제나 든든한 은행이라는 믿음으로 병원의 자금 운용은 물론 개인 거래까지 IBK기업은행에서 하고 있다고 한다.

앞으로의 병원 운영 계획에 대해 김 원장은 "인생에도 사계절이 있듯 순천우리병원에도 이제 여름이 찾아오는 인생의 청소년기와 같은 시기가 온 듯합니다. 이제부터는 수술은 물론 재활치료까지 아우를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해 척추 토탈케어가 가능한 병원으로 거듭나고 싶습니다. 또, 병실 및 수술방 확장을 통해 보다 많은 환자를 수용할 수 있는 여건을 갖출 계획입니다"라고 했다. 김 원장의 말은 모두 한 가지 결론으로 귀결된다. 최대한 많은 환자를 치료하고 싶다는 것. 김한웅 원장의 열정으로 순천우리병원의 사계절이 건강하게 흘러가기를 기대해 본다.



*** 메디칼 네트워크론**
은행권 최초로 국민건강보험공단과 IBK기업은행의 협약에 의해 전국 의료사업자에 담보대출 수준의 저리대출 지원이 특징(한도약정수수료 및 중도상환수수료 면제 포함)



IBK기업은행 일곡지점 김수연 지점장(왼쪽)과 순천우리병원 김한웅 원장

순천우리병원 김한웅 원장의 운영 노하우

1. 환자에게 가장 알맞은 치료법을 파악하라.
2. 발전하는 현대 의학을 선도하라.
3. 보이지 않는 환자들까지 신경 쓰라.

순천우리병원
대표원장 김한웅
전　　화 061-906-8000
주　　소 전라남도 순천시 이수로 291 (조례동)
홈페이지 www.scwoori.com

코너 속 편지

장용의 단·필·충

81 뛰는 놈 위에 나는 놈

85 태풍 루사

90 몸보신

사랑탐구생활

94 아들 부부의 집안일 분담

97 격동의 시기

100 새로운 사랑

주말엔 투유

103 나의 깐부에게

105 존경하는 내 친구

107 우리 예쁜 손부 마리에게



일러스트 | **조신애**

장용의 단·필·충

뛰는 놈 위에 나는 놈

애청자

'12759502' 이것은 나의 군번입니다. 아마 군대 다녀온 사람 중에 자기 군번을 못 외우는 사람은 없을 줄 압니다. 이상하게도 이건 절대 잊히지 않지요. 특히나 제 군번은 나의 입대 시기와 절묘하게 딱 맞아떨어져서 더욱 그렇습니다. 앞의 '12'는 당시 논산훈련소에 입대한 모든 육군의 군번이었으니 당연지사로 치고, 뒤의 '7'은 77년도의 '7', '59'는 내가 입대한 날인 5월 9일, 마지막으로 '502'는 내가 입영열차를 타던 바로 그 시각이 오후 5시 02분이었습니다. 정말 기가 막히게 절묘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얘길 듣는 사람들은 억지로 끼워 맞추지 좀 말라더군요.

아무튼 요즘처럼 사시사철 딸기가 있지 않았던 그 시절, 아들이 군대 간다고 어디선가 그 귀한 딸기를 사 오신 어머님과 입대 전 마지막 음식으로 딸기를 나눠먹고 입영열차에 몸을 실었습니다. 그때는 입대

전 미리 머리를 빡빡 깎고 정해진 역에서 입영열차를 탔는데 요즘은 입영열차라는 것이 없어지고 모든 입대자가 각자 알아서 훈련소까지 간다고 하더군요. 세상이 변해도 참 많이 변했습니다.

또 제가 훈련소에 있을 때는 훈련소 안에서 돈을 소지할 수 없었습니다. 입소할 때 가지고 있던 돈을 전부 맡기고 그 돈에 해당하는 '쿠폰'을 받았는데 쿠폰 금액에도 상한선이 있었지요. 너무 많은 금액을 쓸 수는 없었습니다. 그때 전 아마도 5~6천 원 정도의 쿠폰을 받았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얼마 안 되서 다 동이 나 버렸지요.

우리는 고된 훈련을 끝내고 저녁을 먹은 후 여러 공부도 하고 지급받은 총을 깨끗이 닦고(병기소제) 취침시간 전까지 이런저런 많은 일을 하느라 늘 허기졌습니다. 훈련병들의 이런 가련한 사정을 감안해서 각 내무반을 책임지고 있는 내무반장이나 기간병들은 특혜를 베풀어주었는데 그건 바로 취침시간 후 대표가 쿠폰을 거둬서 PX로 가 원하는 간식거리를 사다가 각자 이불 속에서 먹게 해준 것. 지금 생각하면 참 기가 막힌 일입니다.

저는 매일 밤 모포를 뒤집어쓰고 침상에 누워 소보로 빵 5개와 당시 인기 최고였던 부라보콘을 한꺼번에 3개씩 먹어치웠습니다. 그것도 매일 밤. 그러니 가진 쿠폰은 일찌감치 동이 났고 남들 다 먹는데 나만 안 먹을 수도 없는 일. 굶주린 저는 머리를 쥐어 짜냈습니다. 그렇게 떠오른 묘안이 바로, 알바! 지금 생각해도 정말 기가 막히게 절묘한 알바였습니다.

요즘은 군대에 세탁기에 건조기까지 있다는데 그때는 모든 걸 스스로 손수하는 게 원칙이었습니다. 그래서 훈련병들은 일요일이 되면 빨래터에 가서 완전 진흙탕이 된 훈련복을 직접 빠는데 당시의 훈련복은 정말 대단했어요. 옷이라 하기도 민망할 만큼 헤진 것도 많았고



하루만 입어도 땀과 진흙에 범벅이 돼서 옷이 골판지처럼 굳어버렸지요. 다음날 도저히 입을 수 없는 상태가 되곤 했지만 다들 매일 빨기 힘드니까 일주일씩 억지로 입고 버티는 중이었기에 저는 빨래하기 싫어하는 녀석들을 찾아가 차마 거부할 수 없는 제안을 했습니다.

"야~ 뽀송뽀송하고 부드러운 훈련복 입고 싶지? 몸에 착착 감기는 옷 같은 옷 입을 수 있게 해줄게."

"우와! 진짜?"

"그래~ 니 빨래 주고 대신 쿠폰도 내놔. 빨래 한 번에 쿠폰 3장이다."

어쩌면 이것은 '빨래방'의 원조가 아니었을까요? 큰 목욕탕 같은

곳에 물을 받아놓고 주문받은 옷들을 한 번에 넣고 빨다보면 옷은 솔직히 깨끗해지지는 않아도 많이 부드러워졌습니다. 고여 있는 물에 옷을 넣어뒀다가 진흙이 불기 시작하면 물속에서 흔들어 몇 번 주물럭거리다가 바닥에 꺼내어 이리저리 패대기. 그렇게 몇 번 내리치는 게 다였는데 나중에 티비에서 보니까 인도에 비슷한 '직업 빨래꾼'들이 있더군요. 딱 제가 하던 방법이었습니다.

그렇게 빨래를 하고 나면 다음은 건조. 근데 말리는 게 좀 문제였습니다. 날씨가 좋으면 다행이지만 그렇지 못할 경우에는 다음 날 제대로 마르지 않은 옷을 입고 훈련을 받아야 했지요. 하지만 마르나 안 마르나 조금만 지나면 어차피 땀에 다 젖으니까 다행히 다들 큰 불평은 없었고 갈수록 저를 찾는 고객들은 늘어만 갔습니다. 덕분에 저는 원 없이 간식을 먹다가 자대배치와 함께 훈련소를 떠나야 했는데 자대배치를 받던 날, 그러니까 제 빨래방 영업이 끝나던 날 엄청난 비극을 맞이하게 됐습니다.

유별나게 깔끔한 성향이었던 저는 새 부대로 떠나기 전 훈련소에서 쓰고 입었던 내의와 옷가지, 양말, 속옷을 모두 깨끗하게 빨았습니다. 그 어려운 환경에서도 거의 살균 소독으로 기깔나게 빨아서 잘 말려 제 '더플백' 안에 곱게 접어 차곡차곡 챙겨 넣었는데 기차역에서 잠깐 기차를 기다리는 사이 그만 제 더플백이 사라진 겁니다. 분명히 누군가 고의로 가져간 것 같았는데 범인을 찾아낼 수는 없었고 결국 역에 마지막까지 남아있던 누군가의 더플백을 들고 열차에 탔는데 나중에 자대에 가서 열어보니 그 더플백 안은 완전 엉망진창 쓰레기장이 따로 없더군요. 아마도 훈련소에서 저에게 쿠폰을 주며 빨래를 맡겼던 고객 녀석 중의 하나가 한 짓이 아니었을까 짐작해봅니다. 그 녀석 정말 머리를 잘 썼지요. 역시 뛰는 놈 위에 나는 놈이 있었습니다.

장용의 단·필·충

태풍 루사

백원종 | 강원도 춘천시 백령로

2002년, 제가 강릉에 있는 공군 전투비행장에서 말년 병장으로 지내던 즈음이었습니다. 초유의 태풍이 한반도를 덮쳤습니다. 태풍 이름 루사. 그때 상황을 정확하게 쓰기 위하여 인터넷을 찾아보니 대략 900mm의 비가 왔었다고 하네요. 제 기억엔 더 퍼부은 것 같은데 어쨌든 그 정도의 비는 대한민국 1년 강수량에 버금가는 양입니다.

버스 운전병이었던 저는 등교하는 영내 간부들의 자녀들을 강릉 시내의 초·중·고·대학교 앞에 내려주고 부대로 복귀하는 길이었습니다. 세차게 퍼붓는 비로 차량의 와이퍼는 무용지물이 되었고 시내는 이미 물바다였습니다. 승용차들이 다 물에 잠겨서 길에 멈춰 서 있었고 1층 상가 물건들이 시내 여기저기에 두둥실 떠있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때까지만 해도 상황의 심각성을 깨닫지 못했습니다. 20대 초반이라 겁도 없었고 운전 실력만큼은 자신이 있었던 터라 버스가 빗물

에 파도타기를 하는 듯해도 겁먹지 않고 차분하게 부대로 복귀했습니다.

사태의 심각성은 부대에 들어와서 느꼈습니다. 부대는 그야말로 쑥대밭이었습니다. 퍼붓는 빗속에서 상관의 명령을 듣기 위해 마주 보고 대화를 해도 그 소리가 잘 들리지 않았고 손으로 차량의 와이퍼처럼 얼굴을 어푸어푸 쓸어줘야만 호흡이 가능할 정도였습니다. 모래자루로 밀려드는 물을 막아보려 했지만 그건 마치 개미가 개미굴 입구를 흙으로 막는 것만큼이나 초라해 보였습니다. 활주로의 전투기들까지 물에 잠겼다는 이야기까지 들렸습니다.

우리 수송부는 중요한 서류들을 모두 버스 선반에 올리고 차량을 나름 높은 지대로 옮겨야 했습니다. 저는 누가 시킨 것도 아닌데 손에 익지 않은 육공트럭을 몰고 다니며 옮겨야 하는 물건들을 긴급하게 실어 나르고 탈출이 필요한 사람들을 부대 밖으로 태워다 주었습니다. 당시 빗물은 육공트럭의 운전석, 제 허리까지 차올랐습니다. 다들 아시다시피 육공트럭의 운전석은 성인의 키보다 높은 곳에 있습니다. 그러니 차는 마치 달에서 무중력 상태로 이동하는 느낌이었고 정상적인 작동은 이미 포기한 상황, 저는 그저 시동만 꺼지지 않기를 바라며 아슬아슬한 운행을 이어갔습니다.

저희 부대 비행장은 바닷가 옆에 위치해 있었고 시내에 쏟아진 물폭탄이 부대를 거쳐 바다로 흘러갔기에 저는 흘러가는 물을 측면으로 맞으면서 차가 바다 방향으로 쓸려가지 않도록 온몸에 힘을 주어 운전했습니다. 주인도 모르는 차들이 둥둥 떠다녔고 서로 속도를 줄이지 못해 때때로 쿵쿵 부딪쳤습니다. 문득 곧 죽을 수도 있겠단 생각이 들더군요. 아버지 생각이 났습니다. 평소 살갑게 대해 드리지 못한 걸 후회하며 아버지께 전화를 했습니다. 당시 저는 운전병의 상황을

최대한 활용해서 부대에 휴대폰을 몰래 반입해 사용하던 날라리 병사였기에 가능했습니다.

"여보세요, 아버지! 들리세요?"

"어~ 그래~ 웬종이냐?"

"네, 아버지. 지금 여기에 태풍이 와서요."

"뭐? 뭐가 와? 전화가 잘 안 들린다."

"아버지, 제가 지금 많이 위험한 상황인데요. 아버지, 사랑합니다."

주변 기지국이 망가졌는지 아버지의 대답도 못 듣고 전화가 끊겼습니다. 아, 차라리 전화하지 말걸. 아버지가 걱정하실까 봐 너무 초조해졌습니다.

그리고 그건 군인의 귀소 본능이었을까요. 마지막으로 구조해준 사람들을 내려준 곳에서 저도 같이 피신했어야 정상인데 저는 굳이 꾸역꾸역 목숨을 걸고 아직 사람들이 남아 있는 우리 내무실로 갔습니다. 모든 곳이 물에 잠겨서 어디가 어딘지도 모르는 길을 따라 우여곡절 끝에 내무실 병동 정문에 차가 멈추는 순간 엔진이 자신의 사명을 다한 듯 '빵' 소리와 함께 숨이 멎더군요.

저는 차에서 입수하듯 첨벙 뛰어내려 제 키를 훌쩍 넘는 곳을 헤엄쳐 모두가 대피해 있던 2층으로 올라갔습니다. 그곳을 관리하던 간부들도 겁에 질려 어찌할 줄 모르고 있더군요. 시간이 지나면서 밖은 어두워지고 물은 더디지만 계속해서 올라왔습니다. 저는 그때 갑자기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죽을 때 죽더라도 징징 짜면서 죽지 말자.' 그리곤 취미로 치던 기타를 가져와 노래를 불렀습니다. "긴 밤~ 지새우고~ 풀잎마다 맺힌~." 영화 타이타닉만큼 감동스러웠는지는 모르겠으나 울던 사람들, 허둥대던 사람들 몇몇이 어느새 같이 노래를 부르고 있더군요. "진주보다 더 고운 아침이슬처럼~." 그리곤 선후배 할 거

없이 서로가 미안했던 부분, 고마웠던 부분을 악수하며 사과하고 용서하는 시간도 가졌습니다.

"경석아, 그때 네가 숨겨둔 초코빵, 내가 낼름 먹어버린 거 정말 미안하다."

"아닙니다, 제가 더 죄송합니다"

"얌마, 네가 뭘 잘못했다고 죄송해."

"지난번에 양 병장님 기다리시던 편지 말입니다."

"어! 우리 경아 답장?"

"그거 안 온 거 아니지 말입니다."

"그럼?"

"제가 너무 약이 올라서 지금 제 관물대에 있지 말입니다. 죄송합니다."

"괜찮아 인마~ 그럴 수도 있지. 지금 쏟아지는 이 폭우 앞에서 우리는 아무것도 아닌 존재들 아니겠니? 여기에 우리의 눈물까지 보태지는 말자. 그냥 다 잊기로 하자."

누가 시킨 것도 아닌데 하나같이 멋있는 척을 하며 서로가 서로를 용서하고 챙겨가며 우린 모두 마지막 계단 위로 피신했습니다. 혹시 모를 상황에 대비해서 이불 피를 벗겨서 탈출용 밧줄도 만들고 관물함 문짝을 뜯어서 각자의 뗏목도 만들었지만 모두 효과가 있어 보이진 않았습니다. 누군가는 1.5리터 페트병 두 개를 자신의 겨드랑이에 끼고 행여 놓칠세라 안절부절했고 누군가는 훌쩍훌쩍 울면서 기도를 했습니다. 밤은 깊어갔고 어느덧 마지막 계단 2~3센치만 남겨둔 상황, 물은 서서히 차오르기를 멈추더니 빠지기 시작했습니다.

'휴… 살았다. 죽다가 살아나는 게 이런 거구나.'

다들 크게 내색은 안했지만 비슷한 생각을 하는 듯 지친 얼굴로 여기저기 쓰러져 잠들었고 다음날 다함께 생존의 기쁨을 나눴고 저는 훈련소에서부터 끊었던 담배를 태연하게 다시 물었습니다. 죽다 산 사람에게 담배쯤은 해롭지 않단 생각이 들더라고요.

시뻘건 물이 휩쓸고 지나간 자리와 물건들엔 거의 같은 높이로 진흙이 쌓였습니다. 엄청난 물을 퍼 와서 씻는 것도 일이었지만 5천여 명의 병사가 먹고 싸는 문제도 2주 동안 해결되지 못했습니다. 사방이 변 지뢰밭으로 변하는걸 보다 못한 한 선임은 이렇게 외치더군요.

"야, 똥 되는 건 먹지 마!"

씻는 것과 깨끗한 옷, 넉넉하게 마실 물, 세끼 식사 이 모든 것이 해결되기까지는 약 한 달이 걸렸고, 그동안 모든 끼니는 전투식량으로 해결해야 했습니다.

강릉의 주 도로가 열리자마자 아버지는 한걸음에 부대로 달려와 눈물부터 보이셨습니다.

"나는 니가 진짜 어떻게 되는 줄 알고…. 아이고, 하느님 부처님 천지신명님 고맙습니다."

아버지는 저와 부대원들의 처참한 모습을 보고는 복구를 위해 한 삽이라도 도움을 주겠다며 함께 땀을 흘리셨고 원래는 안 되는 일이지만 간부님은 감사하게도 아버지께 식사라도 하고 가시라며 전투식량 한 개를 더 준비해주셨습니다.

전역이 며칠 안 남았던 병장들도 모두 제대를 연기하고 수해 복구에 힘을 합쳤고 제가 몰래 반입했던 휴대폰 덕분에 수송부 신병들과 많은 이들이 가족들과 안부 전화를 할 수 있었다는 사실에도 저는 또 한 번 영웅 심리를 느끼며 이 글을 마칩니다.

장용의 단·필·충

몸보신

허권재 | 경남 진주시 충의로

32년 전, 의정부 306보충대를 거쳐 안양시 박달동 근처에 있는 58**부대 1중대에 배치받았습니다. 60여 명이 생활하는 내무반에서 좌우 침상에 각 30명씩 있는 선임들을 보면서 까마득히 남은 군 생활을 어찌할지 불안한 나날을 보내야만 했지요.

당시 유일한 낙은 쓰레기장에 휴지통을 버리러 가서 간부들이 읽다 버린 스포츠신문이나 잡지 등을 보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다 사병 식당에도 힘이 센놈이 한 명 있어야 한다는 인사계님의 판단으로 사병 식당에서 근무하게 됐는데 당시 선임하사님이 진급이 늦었던 분이라서 그랬는지는 몰라도 우리 생각엔 별로 필요하지 않은 일을 종일 많이 시키셨습니다. 쓸데없이 짬뚜껑을 노란색으로 칠한다든지 하여간 눈에 띄는 일을 많이 시켰고 효과가 있었는지 좀 있다 진급을 해서 다른 곳으로 가시더군요.

병장을 달고 제대가 4개월 정도 남았을 때 새로 온 선임하사님은 저보다 한 살이 많았는데 나이가 비슷하고 성격도 쾌활해서 금방 친해졌습니다. 그때부터 취사장에서는 활기가 돌더군요. 덩달아 부대원들의 창의성과 적극성도 한껏 발휘됐던 시기인 듯합니다.

저 같은 경우엔 어느 날인가 부식으로 들어온 냉동오징어를 보고 '저걸 한번 말려 먹어 볼까'라는 생각이 들더군요. 그래서 남 일병에게 "야, 오징어의 내장을 제거하고 깨끗이 씻어서 소금에 절여 그 다음에 양파망에 넣어서 간부들이 잘 다니지 않는 저기 뒷산 철조망에 좀 걸어두고 와라"라고 아주 세심한 지시를 내렸습니다.

뒷산 철조망에 오징어를 걸어 두고 돌아온 남 일병.

"병장님! 제가 오는 길에 땅벌집을 발견했습니다."

"그래서?"

"그걸로 전역하시기 전에 몸보신 어떠십니까?"

"몸보신? 어떻게?"

"땅벌집을 살살 파내가지고 튀겨 먹는 겁니다."

입대 전 아버지께 땅벌에 대해 여러 번 들었던 저는 솔직히 좀 망설여졌습니다.

"우리 아버지가 땅벌은 옷을 막 파고들면서 단체로 공격한다던데? 그러다 사람이 죽을 수도 있지 않냐?"

"제 취사병 동기 중에 최 일병이 강원도 철원 출신인데 입대 전에 삼촌따라 지뢰밭을 통과해서 버섯이랑 약초를 캐러 다녔답니다. 땅벌집 캐는 건 저랑 최 일병에게 맡겨주십시오."

몸도 날쌔고 언변이 좋았던 최 일병이라기에 저는 한 번 믿어보기로 하고 셋이서 양파망을 뒤집어쓰고 뿌리는 모기약을 한 통씩 들고 벌집이 있는 곳으로 갔습니다. 벌집이 있을 것으로 추정되는 구멍에

최 일병이 먼저 모기약을 뿌리더군요. 근데 모기약 한 통을 거의 다 뿌려도 벌은 피하지 않고 끊임없이 계속 쏟아져 나왔습니다.

"어, 이상하다. 이렇게까지 나온다고?"

"야야 안 되겠다. 그냥 가자. 그러다 벌들 열 받으면 우리 어떻게 될지 몰라."

저는 그만하자고 말렸지만 최 일병과 남 일병은 자기들이 한 말에 책임을 느꼈는지 계속해서 땅속에다 모기약을 뿌려댔고, 저는 쏘일까봐 무서워서 약간 떨어진 곳에서 담배를 한 대 피우고 있었는데 갑자기 벌떼 소리가 들리는 겁니다.

"악! 으악! 으아악~."

"악! 으악! 이쪽으로 오지 마~ 오지 마~."

두 사람의 비명이 들렸습니다. 그리곤 잠시 후 두 사람은 제 쪽으로 달려오면서 들고 있던 모기약 통으로 자기들의 얼굴을 인정사정없이 때리고 있었습니다. 순간 벌에 쏘여서 둘 다 정신이 나갔나 싶었지요. 자세히 들여다보니까 벌이 양파망 안으로 들어가서 두 사람의 얼굴 곳곳을 쏘고 있었습니다. 저는 잽싸게 양파망을 벗겨주고 우린 그곳을 도망쳤습니다. 그리고 취사장으로 돌아와서 얼굴에 물파스를 바르고 있는데 선임하사님이 뭔 일 있냐며 물으시더군요. 저희는 솔직하게 자초지종을 말씀드렸고 이제 죽었구나 혼날 준비를 하고 있었는데 "야, 앞장 서! 그런 건 진즉에 나한테 말했어야지. 내가 땅벌집 전문이다야~." 그리고는 땅벌집 앞으로 가서 연기를 피우기 시작했습니다. 탄약 보급을 하던 우리 부대에서는 제일 조심해야하는 것이 불이었는데 하사님은 아랑곳하지 않고 최대한 마른 나뭇잎만 골라서 불을 피웠고 땅벌집이고 뭐고 연기가 소나무 숲 위로 올라가는 게 신경쓰여서 저는 멀찍이서 위만 쳐다보고 있었는데 선임하사는 계속해서



불을 피워 연기를 벌집으로 불어넣더니 "어허, 이거 아무래도 안 되겠는데 뭐가 계속 나오네. 뭐가 없을까? 음… 하…." 그렇게 한참을 고민 끝에 "아, 그래! 유레카! 바로 그거야. 끓는 물!" 그렇게 우린 끓는 물 대전으로 벌들을 전멸시키고 위풍당당하게 벌집을 끄집어냈는데 아주 궁궐처럼 커다랄 줄 알았던 땅벌집은 꼴랑 어른 주먹 사이즈. 저희는 대대에서 사용하는 큰 가마솥에 한줌짜리 벌집을 튀겨 그래도 이건 별미라며 '병장님 몸 좋아지셔라~ 니가 더 좋아져라~' 사이좋게 나누어 먹었습니다.

30여 년의 세월이 지났지만 여전히 그때의 선후임들이 생각납니다. 오와 열을 맞춰 군가 '팔도사나이'를 부르며 사병 식당으로 향하던 그들의 우렁찬 노랫소리가 아직도 귓가에 쟁쟁합니다.

사랑탐구생활

아들 부부의 집안일 분담

이경숙 | 부산광역시 동래구 연안로

집 근처에 사는 아들과 며느리는 맞벌이를 하고 있어요. 엄마 아빠가 퇴근하기 전까지는 혼자 있을 일곱 살 손자가 걱정되어 제가 매일 저녁 돌봐주러 갑니다.

그때마다 며느리가 "어머니, 제가 아침에 출근하느라 바빠서 설거지며 집안 정리를 못하고 나갈 때가 많아요. 근데 그때마다 어머니가 오셔서 어질러진 집을 치워주시면 제가 너무 부담이 돼서요. 아침에 자꾸 집을 치워 놓고 나가려다가 지각을 하게 되요. 그러니까 어머니~ 오시면 제발 손자만 봐주세요. 다른 건 절대 하지 마시고요." 며느리가 그렇게 불편하다고 말하는데 살림을 거드는 건 도와주는 게 아니라 며느리를 힘들게 하는 것이고 그게 또 고부 갈등의 원인이 될 수도 있다는 생각에 저는 며느리의 당부대로 하원 하는 손자만 돌봐주었습니다.

그런데 지난 주말에 닭개장을 끓여서 아들네 조금 가져다주려고 전화를 했더니 며느리의 목소리가 좋지 않았어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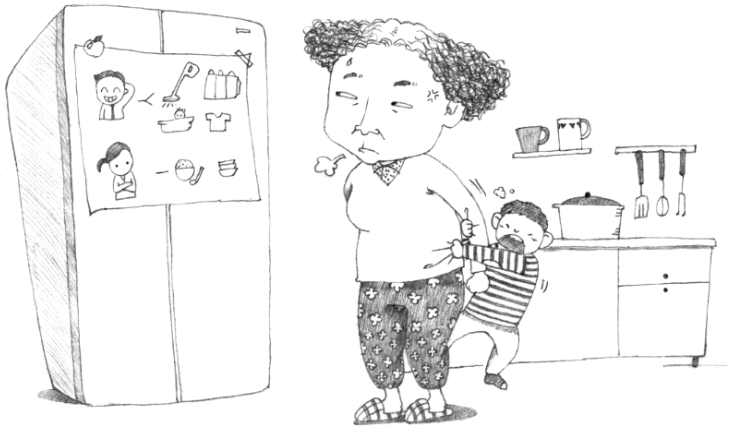
"왜 그래? 어디가 아프냐?"

"그건 아니고요. 어머니~ 남편이랑 집안일 문제로 조금 다퉜어요."

그리고 다음날, 손자의 하원 시간에 맞춰서 아들네 집에 갔는데 냉장고 앞에 며느리 필체로 글이 적힌 종이가 한 장 붙어 있었어요. '집안일 분배.' 그리고 그 아래로 아침저녁 차리고 뒷정리하기에는 며느리의 이름이, 빨래 및 개기·집안 청소·손자 목욕 도와주기·쓰레기 분리수거·음식물 쓰레기 버리기·식품 창고 정리하기·베란다 청소하기·욕실이랑 수족관 청소하기에는 제 아들 이름이 적혀 있었습니다. 마지막에 서로 꼭 지키기라는 글과 함께 각각의 이름에 사인도 되어 있더군요.

아들 며느리가 서로 의논해서 결정한 집안일 분배라지만 솔직히 며느리보다 아들이 확연하게 많은 집안일을 맡은 걸 보니 팔은 안으로 굽는다고 '아이구 바보야 바보. 왜? 하는 김에 아침저녁도 네가 다한다고 그러지' 하는 생각에 속이 좀 상했습니다. 아들을 만나면 속상한 엄마 마음을 털어놓으면서 '잔소리를 좀 할까?' 퇴근해 돌아온 며느리를 만나면 소심한 복수로 '심기 불편한 표정만이라도 좀 지어 볼까?' 고민하다가 괜히 분란만 일으킬까 봐 생각을 바꿨어요.

그날은 마침 아들이 먼저 퇴근해서 왔는데 저는 오히려 아들에게 "부부 싸움했단 얘기 들었다. 집안일 분배 때문에 싸운 거 같던데 네 아내도 맞벌이하랴, 애 돌보랴 힘들 거야. 아무리 남편이 같이해도 집안일은 여자들이 신경 쓸 일이 더 많으니까 네가 잘해. 요즘 며느리들 중에 네 아내만한 애도 없더라. 그러니까 저렇게 써놓은 건 꼭 지켜주고. 알았지? 엄마 말 건성으로 듣지 말고!" 이렇게 제 속마음과는 다른 말을 했습니다.



그리곤 집으로 돌아와 남편에게 아들네 집 얘기를 하면서 속상하다고 하소연을 했더니 남편은 "지들이 알아서 하겠지. 그게 뭔 속상한 일이라고? 그렇게 속상하면 당신이 손주만 보고 있지 말고 몰래 아들이 맡은 집안일 좀 대신 해주고 오면 되겠네! 허허허허~" 하면서 웃더군요.

"아무튼 당신하고는 말이 안 통한다니까!"

"그래? 내가 보기엔 당신이 시어머니 심술을 부리는 거 같은데? 어디 보자. 시어머니 심술보는 어디 붙었나?"

"아이그 진짜! 당신은 아무튼 평생 내 안티야 안티!"

그렇게 남편과 한바탕 속풀이를 한 후 그래도 며느리와 아들의 표정이 한결 밝아진 걸 보니 집안일을 누가 더 많이 하면 어떠랴 둘이 잘살면 됐지 하는 생각이 들긴 했는데 아들네 집에 갈 때마다 냉장고 앞에 적혀 있는 집안일 분배 글을 보면 '에휴 참…' 혼잣말이 나옵니다.

사랑탐구생활

격동의 시기

박영미 | 전북 군산시 축동로

저희 부부는 요즘 격동의 시기를 보내고 있습니다. 연애 시절 잘 맞았던 코드는 하나같이 오류가 났는지 부딪치기만 하면 고압선이 빵빵 터지고 있어요.

연애 5년 결혼 8년 통틀어 12년 차에 접어들다 보니 주변에서는 한 번쯤 지나가는 과정이라며 위로를 건네는데 하나도 마음에 닿지 않고 힘든 시간만 흘러갑니다.

'이런 게 권태기라는 건가? 남편이 갱년기일까? 우리 사랑이 완전히 식은 걸까? 애 때문에 그냥 살아야 하는 건가?'

대답 없는 질문만 머릿속을 뱅뱅 돕니다. 대화해보려고 서로 노력도 하지만 그 대화 속에서 또 다시 감정이 상해 각자 자신만의 동굴 속으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평일은 각자 회사에서 일이라도 하니까 괜찮지만 주말이면 금요일부

터 편두통이 찾아옵니다. 함께 있어야 하는 시간이 많기 때문입니다.

남편이 거실에 있으면 저는 방으로, 남편이 방에 있으면 저는 거실로, 상대가 화장실 간 사이에 냉장고에서 먹을 것을 찾아 먹고 서로 쥐 죽은 듯 주말을 보내곤 합니다.

학교 다닐 때 '너, 네 책상에 선 넘어 오지 마!'라고 경고하던 초등학생들처럼 유치하기 짝이 없는 짓을 요즘 저희 부부가 하고 있습니다. 이런 감정 소비가 불필요하다는 걸 알면서도 서로 선뜻 손 내밀지 못하고 또 건넨 손을 진심으로 받아주지 못하는 시간이 흘러가고 있습니다.

불현듯 작년에 친구가 왔던 때가 생각납니다. 친구는 그때 남편과의 권태기로 무척 힘들어했고, 그날 갑자기 주방에서 요리를 하다가 집을 나왔다고 했습니다. 어디 갈 때가 없어 저에게 전화를 했고 무작정 버스를 타고 제가 있는 곳까지 왔습니다.

대낮부터 우린 술 한 잔 기울이며 저는 친구를 다독였습니다. 그 친구는 '자신만의 별장'이 있었으면 좋겠다며 눈물을 뚝뚝 흘렸습니다. 이 기나긴 권태기를 어떻게 극복해야 하냐며 울고 또 울었습니다. 저는 가만히 듣고 있다고 뜬금없이 이런 조언을 했었지요.

"친구야, 이런 때일수록 강의를 들어보면 어때? 요즘 인터넷에 '권태기 이렇게 극복했다' 이런 강의 많잖아. 스님도 계시고, 소통 강사도 있고…. 피와 살이 되는 내용이 참 많은 거 같던데 내가 자주 듣는 거 하나 공유해 줄까? 확실히 마음에 위로와 평안이 찾아온다니까."

눈물을 뚝뚝 흘리던 그 친구는 애써 고개를 끄덕이며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리고 그 후로 1년, 제가 막상 그 익숙한 듯 잘 몰랐던 '권태기'를 겪어보니 그런 조언들은 귀에 스치지도 않고 와 닿지도 않더군요. 그때 제가 친구에게 아주 어쭙잖은 조언을 했다는 걸 제가 직접 겪어보니 이제야 뼈저리게 느낄 수 있습니다. 마음을 움직이는 좋은 강의도 제 마음이 편하고 열려 있어야 들린다는 걸 이제야 알게 됐습니다.

친구에게 전화를 걸어 지금 제 상황을 얘기하며 이번에는 제가 눈물을 뚝뚝 흘렸습니다. 어떻게 극복해야 할지 모르겠다고 앞으로의 길이 안 보인다고 하소연했습니다. 가만히 듣고 있던 친구가 그러더군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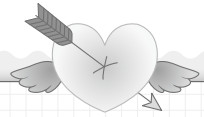
"친구야, 나도 극복했잖아. 너도 할 수 있어."

그 말 한마디가 어찌나 와 닿고 위로가 되던지요. 경험해 보지 않으면 해줄 수 없는 조언이었습니다.

어설프게 조언했던 1년 전 제 모습이 부끄럽다고 했더니 친구는 오히려 고맙다고 했습니다.

"아니야, 그때 나는 정말 아무것도 하기 싫어서 자포자기 상태였는데 너 만나서 이런저런 얘기하고 집에 돌아와서 책이랑 영상을 찾아보면서 좀 더 나은 아내, 좀 더 나은 엄마가 되려고 노력하고 있어. 남편과도 조금씩 나아지고 있고…."

저도 조만간 이 위기를 잘 극복하고 친구처럼 좀 더 나은 아내, 엄마, 사람이 될 수 있겠죠? 힘든 시간이지만 꿋꿋이 잘 버텨보렵니다. 나중에 이 편지를 웃으며 들을 수 있는 날이 빨리 꼭 왔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탐구생활

새로운 사랑

권경자 | 인천광역시 남동구 논고개로

딸 아들 모두 결혼하여 분주했던 집안은 텅 빈 것 같고 휑한 집에 남편과 저, 둘만 남았습니다. 암 투병을 했던 남편이 밤마다 잠꼬대처럼 끙끙거리는 소리에 어느 정도 익숙해질 무렵, 나이 먹어 '마지막 도전'이라고 생각하고 한식 조리사 자격증을 취득했어요. 방송에 나오는 멋진 요리사들처럼 저도 구수한 말솜씨와 뚝딱뚝딱 음식을 만들어내는 솜씨로 새로운 세계에 도전해보고 싶었지요. 여기저기 이력서를 제출하고 드디어 요양원에 조리사로 입사! 하지만 익숙하지 않았던 세계에서 1년간 시행착오를 거듭하며 입사와 퇴사를 반복하다가 3개월 전, 지금 다니는 요양원에 다시 출근하기 시작했습니다.

새벽에 출근해서 잠깐 근무하고 퇴근하는 일이라 좋았어요. 근데 문제는 딱 하나, 출근 시간. 새벽에 나가야 하는데 교통도 불편하고 너무 이른 시간이라 버스도 잘 없었습니다. 망설이다가 남편에게 지원 요청을 했지요.

"저… 여보, 나 새벽에 좀 태워다 줄 수 있어? 집에서 5시엔 나가야 할 거 같은데, 근데 당신도 너무 힘들겠지?"

"아니야~ 괜찮아. 내가 태워다줄게."

그후로 새벽 4시만 되면 남편 휴대폰에서 알람이 울리고 남편은 저를 깨웁니다.

남편이 출근지까지 데려다주는 그 짧은 시간 동안 우린 차에서 이런저런 대화를 합니다. 결혼하고 40여 년 동안 함께 있는 시간이 늘어날수록 대화는 오히려 점점 줄었더랬죠. 그런데 제가 취업하고 난 후 남편과의 대화가 차 안에서 쉬지 않고 서로 이어집니다.

"오늘은 굴밥 해봐야지. 유튜브 요리 선생님이 쉽게 잘 가르쳐."

"당신 요즘 자꾸 맛있는 거 해놓더라. 생전 부엌 근처엔 얼씬도 안 하더니 갑자기 왜 그래? 내가 해주는 밥이 이제 맛없나?"

"그럴 리가. 당신 일하고 오면 피곤할까봐 그러지. 그리고 내가 해준 밥을 당신이 맛있게 잘 먹으면 그게 그렇게 기분이 좋더라고."

"어머머머~ 당신이 그런 말도 할 줄 알아? 어디 보자, 지금 해가 어느 쪽에서 떴나? 북쪽에서 뜬 거 아냐?"

절대 변하지 않을 거 같았던 남편. 평생 부엌일은 당연히 여자가, 남자는 돈 벌어오는 일만 하는 가장이라고 큰소리 떵떵 치던 남편이 암으로 한동안 아프고 나이 들면서 조금씩 바뀌어 가는 모습이 신기하기만 합니다. 심지어 살림을 말하지 않아도 저보다 더 깔끔하게 잘해요. 알아서 설거지하고 가지런히 정리해놓은 식기들을 보면 남편의 모습이 낯설게만 느껴집니다. 요즘 새로운 남자랑 사는 기분이랄까요?

새벽 찬 공기를 마시며 출근하는 남편과 저는 남은 시간을 서로 더 애틋이 사랑하고 위하는 날들로 가득 채우겠습니다.

주말엔 투유

나의 깐부에게

이진영 | 경기도 평택시 탄현로

"언니! 나도 같이 가~."

"언니! 나도 끼워줘~."

어렸을 때 내가 언니에게 많이 했던 말인데 생각 나? 부모님이 바빠서 집에 안 계시면 언니가 나의 보호자였지. 지금 생각해보면 언니도 그때 나보다 겨우 세 살 많은 어린 꼬마였네. 어린 나를 어디 맡길 곳이 없으니 엄마는 언니에게 나를 잘 돌봐달라고 하셨지. 아마 엄마 마음도 편치는 않으셨을 거야.

기억 나, 언니? 나는 그때 언니가 다니는 곳 어디든 따라다녔잖아. 동네 유치원과 학원은 물론이고 언니 초등학교 1학년 때는 학교에도 따라갔지. 토요일 오전 수업을 듣는 언니 옆에 앉아 그림 그리고, 언니가 챙겨주는 간식도 열심히 받아먹었네. 당시, 언니의 담임선생님께서 넓은 마음으로 이해해주고 엄마처럼 챙겨주셨던 기억이 생생해.

방과 후 언니가 친구들이랑 놀러갈 때도 꼭 언니 뒤를 졸졸 쫓았어. 깍두기로 기어이 껴서 같이 놀았지. 그때 내가 어려서 고무줄놀이며 공기놀이에 잘 끼질 못하니까 언니가 집에서 특별 과외까지 해줬잖아. 그때 언니는 나에게 정말 크고 대단해 보였는데 언니는 알까?

언니! 언니는 정말 작고 어린 꼬마였는데 매일같이 내 손을 잡고 데리고 다니느라 얼마나 버거웠어? 언니도 친구들과 재밌게 놀고 싶었을 텐데 어린 나까지 챙기느라 얼마나 부담이 됐을까. 이제 나이 먹고 보니 내 옆을 지켜준 꼬마 언니가 참 짠하고 고맙다.

지금은 세상 둘도 없는 단짝이 되어 남편에게도 말하기 힘든 온갖 고민을 털어놓는 사이가 됐네. 아마 자매 사이야말로 진정한 '깐부'가 아닐까 싶어.

몇 년 전 언니가 처음으로 수술 받던 날, 수술실에 들어가는 언니를 바라보던 그때를 생각하면 아직도 마음이 저려. 수술실까지 따라가서 "잘 하고 와"라고 웃으며 말했지만 대기 현황에 '수술 중' 하며 언니 이름이 뜰 때 참았던 눈물이 터져 나오더라. 겁 많은 게 우리 집 내력인데 언니는 얼마나 떨렸을까? 내가 도울 수 있는 일이 없어서 그저 기도하며 기다리고 또 기다렸어.

수술 후 병실로 옮겨질 때 너무 추웠는데 마취가 아직 덜 깨서 춥다고도 말할 수 없던 그때, 내가 언니의 발을 두 손으로 꼭 쥐고 두꺼운 양말을 신겨 주었는데 언니는 두고두고 그게 계속 생각난다고 했어. 언니를 너무 사랑하고 안쓰러워하던 내 마음이 전달되었나봐.

어린 동생 돌봐온 꼬마 언니, 나의 깐부! 이제는 내가 언니를 지켜줄게. 언니에게 힘든 일이 닥쳐올 때 옆에서 힘이 돼줄게. 우리 몸 건강 잘 지키면서 지금처럼만 살아가자. 언니, 정말 정말 사랑해.

주말엔 투유

존경하는 내 친구

이종숙 | 서울 관악구 행운길

친구야! 먼저 완치 판정 받은 것 정말로 축하한다.

너를 향한 존경의 마음을 어떤 말로도 다 표현할 수가 없을 거야. 내 상황이 상황이다 보니 몹쓸 병마와 싸워 이긴 네가 더 멋지게 느껴진다.

그동안 얼마나 외롭고 쓸쓸했니. 사실 내 몸이 아프기 전까지 잘 몰랐어. 그런데 아파 보니 아픈 사람들 마음을 진심으로 이해할 수 있겠더라. "병원에 가면 다 나을 거야"라는 말, "걱정하지 마. 현대 의학이 얼마나 발달했는데"라는 말, "웬만하면 다 나을 거야"라는 말, 위로 아닌 위로였던 그 말들이 너에게 얼마나 무겁게 다가왔을까. 돌이켜 생각하니 정말 부끄럽다.

그럼에도 넌 언제나 당당하고 씩씩했네. 강해 보이려고 네가 부단히 노력했다는 것도 이제 알겠어. 아마 모든 사람의 염원 아닐까. 아프지 않고 건강하게 살다가 고통 없이 삶을 마감하는 거. 하지만 절대 내 마음대로 될 수 없는 것이 우리네 인생인 것 같다.

친구야, 이제 남은 인생 아프지 말고 건강하게 살다가자.

이젠 네가 나 좀 도와줄래? 나 정말 의지할 곳이 필요해. 요즘 이런 생각을 자주해. 어차피 인생은 혼자 왔다 혼자 가는 거라고. 결코 같이 갈 수 없는 게 우리들 인생인 것 같다고. 하지만 그렇게 생각하면서도 마음은 참 외롭다.

친구야, 네가 정말 존경스럽다. 역시 노력하는 사람은 빛을 보는구나 또 한 번 느낀다. 네가 병을 이길 수 있었던 건 긍정적인 너의 힘이 아니었을까. 그 힘이 오늘의 좋은 날로 널 이끈 게 아닐까 생각해본다.

친구야! 너의 힘을 나에게도 좀 나누어줄래? 나는 연약해서 그런가? 아무리 힘을 내려 해도 몸 따로 마음 따로야. 난 정말 내가 병에 걸릴 거라고 생각 못 했어. 항상 건강할 거라고 자만했지.

이렇게 병원 신세를 져야 하고 몇 년간 지속적으로 관리하며 살아야 한다는 사실이 아직도 너무 충격이야. 그렇지만 어쩌겠어. 이제 나도 너처럼 긍정의 힘으로 살아갈 것을 마음 먹어본다. 내려놓을 것은 내려놓고 포용할 것은 포용하기로 결심해본다.

친구야, 나에게도 힘 좀 주라. 네가 주는 힘이 절실히 필요해.

친구야, 우리 남은 인생 아프지 말고 건강하자. 열심히 파이팅하며 서로 위하며 살아가자.

친구야, 끝으로 한 번 더 너의 완치 판정을 축하해.

- 너의 친구, 종숙이가

주말엔 투유

우리 예쁜 손부 마리에게

최옥분 | 경기도 군포시 고산로

마리야! 고생 많이 했다. 무사히 출산했다는 소식 들었다. 어제 조리원에 들어갔다지? 이 할미가 가보지는 못하고 어떻게 축하를 해주어야 하나 생각하다가 내가 가장 좋아하는 여성시대에 편지를 띄워 위로와 축하를 함께 보낸다.

애기 셋을 낳을 때도 물론이지만 특히 이번에 네 번째 애기는 더욱 마음을 졸였다. 만삭의 몸으로 오늘 내일 하는 차에 코로나가 온 가족을 덮쳐와 네 남편은 병원으로 실려 가고, 너희 식구들은 모두 양성 판정을 받고 격리되어 문밖에도 못 나가는 형편이었지. 아기들 또한 어린이집도 못가고 집안에만 갇혀 있어야 하니 무거운 몸에 아이들 거두느라 체중이 줄었다는 말을 듣고 나는 발만 동동 굴렀구나. 뭐라도 도와주고 싶지만 찾아갈 수도 없는 현실이 야속하기만 했지.

마리야, 친정엄마 많이 보고 싶지? 왜 아니겠니. 애기를 가졌을 때,



애기를 낳을 때 누구보다 그리운 게 어머니인데 이렇게 고생스러울 때 친정엄마가 옆에 계시다면 네 마음이 얼마나 푸근할까 생각하면 내 맘이 정말 안타깝구나.

네가 결혼한 뒤로 친정 부모가 한국에 한 번 오셨고 너희가 일본에 두어 번 간 것 외에 근래에는 고향에도 못 갔는데 코로나 때문에 길이 막혀서 네 맘이 오죽할까 싶구나.

코로나가 걷히면 그때는 마음 놓고 친정 부모님도 만나고 고향 친구도 만나서 회포를 풀 수 있을 테니 조금만 더 참고 견디어 보자.

사랑하는 손자며느리 마리야, 너를 처음 만났던 때를 떠올려본다.

8년 전 유학생으로 한국에 온 네가 대학에서 손자와 만나 인사하러 왔을 때 머루알처럼 까만 눈동자로 생글생글 웃던 모습이 잊히지 않는구나. 그때만 해도 다문화가정이란 단어가 우리 가족에게도 해당되나 하는 의문이 있었지.

그러나 너는 한국어 교실과 또 여러 문화 강좌를 들으며 언어장벽과 문화 차이를 극복하고 한국 생활에 열심히 적응하는 모습을 보여줘서 나의 기우를 말끔히 해소해주었다. 요즘 주고받는 문자 메시지를 보아도 한국사람 못지않게 맞춤법도 틀리지 않고 잘 하는 걸 보면 대견한 마음이 든다.

마리야, 네가 첫 아기 임신했을 때가 특히 잊히지 않는다. 산 설고 물 설은 이국땅에 와서 처음으로 아기를 가졌으니 얼마나 고향 음식이 먹고 싶을까 싶어서 나는 나름대로 고민을 했지. 백화점과 쇼핑센터를 돌며 우메보시, 미소시루, 낫또며 각종 면류에 일본 과자 등 아는 대로 몇 가지씩 사다가 집 생각날 때 먹으라고 전해주던 게 이젠 다 추억이 되었구나. 요즘 애들답지 않게 나물 종류도 좋아한다기에 이것저것 나물 반찬 몇 가지씩 만들어주었던 것도 내 나름대로의 사랑 표현이고 보람이었단다.

사랑하는 손부야, 조리원에서 미역국 많이 먹고 몸조리 잘해서 건강한 모습으로 돌아오기 바란다. 그나마 다행인 건 네가 출산하기 바로 전에 네 남편이 코로나 완치 판정을 받고 퇴원했기에 조금은 걱정을 덜은 일이다. 집의 애기들은 네 시어머니와 휴가를 받은 네 남편이 잘 돌보고 있을 테니 걱정 말고 너는 갓난아기와 함께 먹고 자고 네 몸조리만 잘 하면 된다.

이 편지가 너는 물론이고 갓 태어난 아기에게도 잊지 못할 선물이 되길 바란다. 사랑한다. 우리 손부, 부디 건강하고 행복하여라.

여행자의 소지품



양희은 | 여성시대 진행자

지난달 박물관 몇 군데에 갈 계획을 짰었다. 데이트 상대는 90년대 CBS 기독교방송 '양희은의 정보시대' 작가. 그런데 갑작스럽게 취소되었다. 이유는 그 작가의 망막박리. 눈이 갑자기 이상해서 병원에 들렀는데 당장 수술해야 한대서 응급 수술하고 두어 달가량 고생하고 있다. 최근 전화하니 이젠 70% 정도 보인단다. 혼자 독립해 사니까 엄마가 걱정하실까봐 알리지도 못하고 이것저것 배달시켜 먹으며 견디고 있단다.

너무 성실해서 탈인 사람. 내가 미국에 살다 귀국 후 CBS 아침방송을 시작했을 때(여성시대와 같은 시간대로 9~11시 프로그램이었다) 아무도 없는 넓은 사무실에 늘 나보다 먼저 와 있던 작가였다. 그렇듯 묵묵히 충실한 기질이 시력에 결정타를 준 것 같다.

나는 "무엇이든 오래 하려면 올인하면 안 된다. 그러면 지레 지친다. 죽어라고 자신을 몰아가면 결국 몸이 반란을 일으킨다는 얘기야. 남들이 볼 때 빈둥거리듯 놀멘놀멘 쉬엄쉬엄해야 길게 일할 수 있어" 말했다.

눈 때문에 똑바로 눕지 못하고 엎드려 자야만 해서 잠이 부실하니 회복되는 속도가 느린 듯하다. 망막 뒤에 가스를 넣었기 때문에

엎드려 자야 한단다. 지금도 글 쓰고 기획하는 일을 하니 눈이 지칠 법도 하다. 하여튼 좋아지고 있다니 기다려 봐야지.

여기저기서 아프단 소리가 많이 들린다. 사람마다 인생의 굴절을 겪는 나이가 있어 개인차가 나겠지만 나는 27세, 30세, 36세, 65세를 짚어볼 수 있다. 8년 만의 대학 졸업(27세), 14개월 배낭여행 후 암 수술(30세), 결혼 후 멀리 떠나 살게 됨(36세), 기력이 떨어지고 덩달아 의욕도 마음도 가라앉음(65세). 또래끼리 얘기하면 대체적으로 65세가 되니 훌쩍 꺾이고 모든 게 마음 같지 않다고 한다.

나는 노년의 우울감과 수면 장애를 운동으로 이겨냈다. 내게 맞는 운동을 찾아내어 주 5회 정도 하는 게 정답이다. 걷기는 사람을 치유할 뿐 아니라 질병도 치료할 수 있다고 한다. 무엇이 맞는지 찾기 버거울 땐 햇빛 아래 걷기가 정답이다. 경보, 속보, 느리게 걷기, 보통 빠르기로 걷기 등이 있으나 자기에게 맞는 걸 찾아내면 된다.

요즘 권하고픈 책이 있다. <자유로운 여행자의 소지품 목록>. 짐 없이 떠나는 가벼운 여정에 대하여 여러 사람들의 소지품 목록을 살펴본 책이다.

- 마르셀 뒤샹은 이렇게 말했다. 짐 가방은 절대 사절. 두 겹으로 껴입은 셔츠, 재킷 주머니에 칫솔 하나.
- 애팔레치아 트레일을 종주한 에마 게이트 우드 할머니는 67세에 고급 장비 없이 자루 하나 메고, 3300km의 여정을 완주한 최초의 여성이다. 손수 만든 데님 가방 안에 스웨터 재킷, 스카프, 가벼운 양모 담요, 텐트 대용 비닐커튼, 물통 대용 230cc 플라스틱 젖병 두 개, 방수모자 우비(깔개처럼 두 겹으로 접은), 손전등, 스위스 아미나이프, 티스푼, 양철 컵, 성냥, 일회용 반창고와 머큐로크롬, 옷핀과 머리핀, 바늘과 실, 단추, 비누와 수건. 간단한 식재료 고형부용(우리 라면스프 같은 육수용 고체 양념), 육포, 건포도, 땅콩, 분유, 소금을 꼽았다.
- 부두의 철학자 에릭 호퍼는 "나는 언제나 배낭에 넣고 다닐 수 있는 것보다 많이 소유하지 않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했다"고 했다.
- 타이라오산의 은자는 그리 많지 않은 밀가루, 요리용 기름, 소금, 얼추 5년마다 새 담요 한 장(혹은 가사 한 벌)을 소지품으로 정했다.
- 아일랜드 성직자 테렌스 신부는 "그 어느 때보다도 요즘 사람들은 물건 없이 사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물건은 사람의 영혼을 두려움에 빠뜨리지요. 더 가질수록 많이 두려워하게 됩니다. 물건은 아주 쉽게 사람의 영혼에 들러붙어 이래라 저래라 하지요." 지당한 말씀이다.
- 예수께서 열두 제자를 보낼 때 지팡이 외에 아무것도 지니지 말라고 하셨다. 바랑, 양식, 돈 아무것도 지니지 말고 두 벌 옷도 입지 말고 신만 신고 가라하셨다.

나는 내가 가진 물건의 홍수 속에서 허우적거리며 하루하루를 살고 있다. 에휴우~.



역주행 신화를 경험하다

서경석 | 여성시대 진행자

사전적 의미의 '역주행'은 매우 부정적이다. 같은 찻길에서 다른 차량들이 달리는 방향의 반대 방향으로 달리는 것을 이른다. 엄청난 사고의 원인이 되는 행위이다. 그러나 이런 '역주행'이 문화 현상을 설명할 때 쓰이면 의미가 완전히 달라진다. '신화' 급으로 평가된다.

음반 발매 후 4년 만에 대중에게 폭발적인 인기를 얻으며 신화를 써낸, 걸 그룹 '브레이브 걸스'의 롤린, 스페인 국내 방영 당시엔 그다지 큰 반응이 없어 평범하게 막 내릴 뻔했다가 글로벌 OTT 기업 넷플릭스에 업로드 되면서 전 세계인의 사랑을 받으며 시즌5까지 제작된 '종이의 집', 대본이 완성되었던 2009년에는 낯설고, 어렵고, 잔인하고, 상업성이 없다는 평가를 받아 투자도 캐스팅도 안 되었는데, 10년이 지난 후, 정말 재미있고 현실감 든다는 반응이 많아 시나리오 확장 후 만들어 글로벌 대박을 터뜨린 황동혁 감독의 '오징어게임'.

최근 우리가 보아온 역주행 신화의 대표적 예들이다. 결국 이렇게 큰 결과를 나을 작품들이 왜 세상에 나온 직후엔 반응이 없었을까? 선뜻 이해가 가지 않는 현상이다. 이런 신기한 경험을 나도 최근 하게 되었다. 6개월 전, 유튜브 채널 '서경석TV'에 올렸던 한 콘텐츠를 통해서. 서경석TV의 콘셉트는 다양한 분야에 끊임없이 도전하는 것이다. 축구, 골프, 수영, 다이어트, 공인중개사 시험 등등. 그 중 하나로 작년 여름, 3개월 간 영어 회화 공부에 도전하는 과정을 영상으로 담았다. 그때 주변 사람들의 영어 실력을 보고 자극을 받아 보자는 의도로 만들었던 영상이 있었다. 양희은 누님을 비롯한 예닐곱 명의 연예인들에게 몇 가지 질문을 던지고 그들이 영어로 답하는 동영상을 받아서, 외국인 두 명과 함께 그 영상을 보고 순위를 매겨 보는 형식이었다.

기본적으로 바쁜 연예인들이고, 부담을 느낄 수도 있는 내용이어서 기획의도를 설명하고 설득하는 단계에서부터 쉽지가 않았다. 게다가 기존 콘텐츠와 달리 출연자도 많고, 영상을 보며 토크를 해야 하는 형식이기에 촬영 및 편집을 위한 스태프도 전보다 많이 섭외해야 했었다. 개인 채널에서 만들기엔 결코 쉽지 않은 그야말로 '블록버스터' 콘텐츠였다. 우여곡절 끝에 촬영을 마쳤고, 편집도 2차, 3차, 4차까지 심혈을 기울였다. 드디어 촬영 후 3주 만에 업로드! 참여했던 스태프 모두가 큰 기대를 갖고 결과를 지켜봤다. 하지만 결과는 참담했다. 적어도 조회 수 10만은 기록할 줄 알았는데, 첫 주에 1만, 그 후로도 2만 뷰 정도까지 올라가다 멈추었다. 그렇게 서경석TV가 만든 몇 안 되는 블록버스터 중 하나가 잊혀져갔다.

그런데 그 영상을 업로드 한 지 약 6개월이 흐른 지난 달, 갑자기 조회 수가 폭발했다. 말 그대로 역주행이었다. 약 3, 4일 동안 몇 십만 조회가 한꺼번에 이루어져서 순식간에 누적 조회 수 80만을 넘긴 것이다. 서경석TV에 올라가 있는 콘텐츠를 통틀어 최고 조회 수 랭킹 3위

에 해당하는 어마어마한 결과다.

얼떨떨했다. 내게도 이런 일이. 정말 신기하고 믿어지지 않았다. 전문가들의 분석에 의하면 시시각각 변하는 유튜브 알고리즘에 영상이 딱 들어맞으면 이런 현상이 충분히 일어날 수 있다고 한다. 그렇다. 운이 좋았다. 그런데 그보다 더 중요한 이유를 알 것 같았다. 기획 단계에서부터 업로드 될 때까지 최선을 다해 심혈을 기울여 만든 작품이었기 때문이다. 아무리 알고리즘을 탔다고 해도 콘텐츠 자체의 경쟁력이 없었다면 다시 주어진 기회도 그냥 스쳐 지나가버렸을 것이다.

나의 경우와 비교하는 것이 너무 미안할 정도로 대작들이지만, 앞서 얘기했던 브레이브의 걸스의 '롤린', 스페인 드라마 '종이의 집', 황동혁 감독의 '오징어게임' 역시 뒤늦게 좋은 기회를 얻었다 하더라도 콘텐츠 자체가 훌륭하지 않았다면 신화를 써 낼 수 없었을 것이다.

열심히 최선을 다한 무언가의 결과가 당장 제대로 된 성과를 보여주지 않을 때 실망이 참 크다. 좌절하게 된다. 알아주지 않는 세상을 원망하게 된다. 하지만 그때 이런 생각을 해보면 어떨까?

'세상이 너무 바빠서 이번엔 내 작품을 봐줄 시간이 없었나 보다. 다시 기회가 왔을 때 부끄럽지 않도록 부족한 것을 채워 놓고 다음 일 하면서 기다려 보자.'

이제 나는 연예인 영어 순위 2편을 기획 중이다. 이번에도 당장의 반응이 없을 수 있다. 하지만 언제든 다시 평가받을 수 있는 기회가 올 수 있음을 확실히 알았으니, 1편 때처럼 최선을 다해 준비하고 촬영하고 편집할 것이다.

은행이 전통시장 디자인을 한다구요?

IBK희망디자인 프로젝트 _ 전통시장

달라진 입구며 간판 때문에 시장이 다시 북적이니까
처음 장사하던 때처럼 신이 난다는 사장님
IBK기업은행이 전통시장 디자인으로
사장님들의 희망을 키워가고 있습니다



IBK희망디자인 프로젝트 _ 남포동 건어물 도매시장

IBK기업은행이 소상공인들의 간판과 차광막, 로고 등을 디자인하고 설치하여 골목상권의 환경을 재정비해 주는 사회공헌 사업입니다
2016년부터 시작해 총 260여 개의 소상공인 터전과 함께했으며, 2021년에는 남포동 건어물 도매시장 디자인을 지원하였습니다

IBK기업은행